東大新聞

제1041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단—10 1955·10·13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0년(단기4323년)3월14일 (수요일) 【1】

발행인 신국주
편집인 조병찬
주간 박영길
편집국장 신관호
편집장 정우석

펴낸곳: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267—8577)
FAX (02)279—1270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41—4132)
인쇄인 김영로

今週一言

먼저 바로 알기를 배워라
옳고 그름을 살필줄 알아라。
그러고야 남을 교화 할 수
있나니 슬기로워 다시는 괴로움 없으리。
〈法句經·애신품 184절〉

등록금 협상 난항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

예산 편성 학생 참여및 예·결산 공개 제시

재단전입금 확충 — 부정입학 진상규명 이뤄져야

90학년도 등록금 협상이 계속 지연되어 학사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비상총학생회는 지난주 말까지를 협상타결 기한으로 잡고 학교측에 △예·결산안의 공개 △예산편성시 학생참여 △정책적 마스터플랜 제시등을 요구했으나 지난 12일 열린 학처장회의에서 학생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등록금협상이 언제쯤 타결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관련기사 7면〉

'제8차 등록금협상'이 지난 10일 오후3시 학교측대표로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과 학생측대표로 학자투위원장, 비총학생회장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2층(기획조정실)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협상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7일자로 새로 부임한 李淳容(법학과)교수로 바뀌어 학생측은 그동안 경과된 협상내용을 설명한 다음 구체적 내용을 거론했다。즉 학생측은 이날 "등록금은 학문을 위해 고유한 영역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경주 의대 부속병원건립은 재단의 수익사업이므로 재단이 책임을 져야하며, 가예산항목중 동국별관설계비 동국관증축공사비, 의대부속병원 기구매입비등 고정자산에 투입되는 몇 항목 등은 등록금산출 지급내역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제9차 등록금협상은 오는 15일 오후3시 기획조정실에서 열릴 예정인데, 협상 타결 여부는 미지수이다。

"부정입학 진상조사 할터"

申총장서리 공청회 석상서 밝혀

등록금, 부정입학규명, 학자투 8개항등 현안 학내문제에 관한 금년 첫 학자투 총궐기대회가 지난 7일 오후2시 교직원·학생 8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앞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학자투위원장 강병득(미술4)군은 '학자투보고'를 통해 "등록금이 교직원 연금, 의대건물 보조비등으로 부당하게 쓰여져서는 안된다"며 학생의 예산편성참여, 예·결산공개, 국·사립지원 차별철폐를 위한 대문교부투쟁을 주장했다。

이어 오후3시40분경에는 申國柱총장서리를 비롯, 吳國根부총장과 3처장이 공청회석상에 나와 등록금동결, 부정입학 진상조사, 8개항파기등에 관한 학생회측 질문에 학교측 입장을 밝혔다。

이날 申총장서리는 "부정입학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에는 "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사회대 학생회장 정기영(정외4)군의 총장서리와 보직교수 사퇴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교수회에서 총장선출을 못했기 때문에 총장서리자격이 있다"고 밝혔다。또 吳부총장은 "예산공개, 재단전입금확보, 문교부 지원등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지난 7일 '등록금 동결·부정입학 진상규명'등에 관한 학교당국과 학생간의 공청회가 열렸다

교수회 '주체역량'미흡

신임 회장 선출등 정상화 시급

학내의 가장 큰 현안중의 하나인 총장선출문제를 놓고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교수회가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교수회는 지난달 16일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전체교수회의 임시총회에서 金鎔貞(철학)교수회장이 사퇴를 표명한 이후 한달여동안 회장이 공석인 상태로 별다른 수습책없이 지내오다 지난 10일 대의원회를 열고 신임 교수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전체교수총회 개최안을 논의했다。그러나 이날 대의원회는 "교수들의 참여 부족으로 총회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로 총회 소집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金翔圭(토목공학) 교수회 부회장을 교수회장 권한대행으로 선임했다。

학생증 추가발급

학생처에서는 '학생증 추가발급및 재발급'업무를 오는 4월15일까지 취급한다。대상자는 신입생중 미발급자, 복학생, 편입생, 그리고 재학생중 분실자등으로 학생증발급신청서를 장학과에서 교부받아 등록금납입영수증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분실자(재발급자)는 재발급 수수료 1천원을 경리과에 납부한후 신청해야 한다。

보리수

苦海와 處處安樂

佛敎에 있어서 두가지의 相反된 개념의 단어들이 상충됨이 없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의 한쌍이 苦海와 處處安樂이다。祖師님들은 이 世界를 苦通의 바다, 또는 慾望의 불길에 휩쌓인 집이라고 단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때, 어느곳 애든지 흔들림이 없는 마음의 平和와 安樂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어떤이는 이 世上이 즐거움으로 가득차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하지만 즐거움 자체가 괴로움의 상대적인 것이어서 괴로움을 모르면서 즐거움을 아는것이 불가능하다。즐거움을 깊이 느끼는 정도는 괴로움을 느끼는 정도와 정비례하기 때문이다。人間存在의 根源이 苦通이라는 것을 투철하게 깨닫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즐거움이나 安樂이 나온다。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자。苦通을 주는 것들로 꽉차있다。5共 청산하는일, 3黨 합당하는일, 南北 對話하는일, 심지어 우리 학교내에서의 정치하는일까지 어느 한가지 우리 마음에 만족한 것이 없다。인류역사를 통털어 볼때 어떤哲學이나, 政治的 理念이나 宗敎的인 가르침이 그 時代의 사람들에게 완전한 즐거움을 준적은 없다。

世上은 참으로 답답하다。괴롭다。거짓 투성이다。貪慾과 僞善으로 꽉차있다。그러나 어찌하랴。그것이 人間存在의 참 실상인것을—, 하지만 不義를 正義로 바꾸고 束縛을 自由로 바꾸며 不平等을 平等으로 바꾸는데 우리는 最善의 努力을 다해야 한다。물론 이 苦通의 바다를 당장 極樂世界로 영원히 바꿀수는 없을 것이다。단지 理想의 實現을 爲해 努力할 뿐이다。

佛敎에 있어서 安樂의 世界가 이 苦海를 떠나 별도로 存在하지 않는다。苦通의 現實과 苦通의 原因과 苦通을 解決한 理想世界의 實相을 如實하게 보고 그 理想을 向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極樂이다。그러므로 理想에 매달려서 惡感을 주는 言語나 形狀을 지어서는 안된다。충칼과 돈이 난폭하게 쓰여질때 폭력이 되듯이 이 苦海의 實相을 如實히 보지 못하면 知識이나 正義感도 處處에서의 極樂을 헤치는 폭력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時時處處에서 殺生의 모습이 아닌 放生의 모습과, 미움이 아닌 사랑의 모습을 지어야 한다。설사 苦海를 보고 괴로워 할지라도 마음 바닥이 動하지는 않아야 한다。苦海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여이지 않으면서 나도 平和를 얻고 남에게도 平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釋 之 鳴

총학선거 범민주연합과 민중권력 수립의 "견해차" 예상 2개조 입후보

제22대 총학후보자 등록 마감이 지난 13일 끝남으로써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당초 3~4팀이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대표적인 양대세력권의 후보가 입후보한 이번 선거는 기만적인 보수대야합 분쇄와 학원의 자주권수호라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임하게 됐다。

오는 28·29일 양일간 실시되는 제22대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에 2조가 입후보했다。

기호1번 이규민(국문4)·이진선(야간무역4), 기호2번 권오철(화학4)·이진한(경영4)조가 입후보했다。

기호1번 이규민·이진선조는 '오월의 거리에서 친미파쇼야합 격파하고 자주통일의 90년대로 치달려 가자! 자주동악이여'란 슬로건으로 '전국대학생 5월광주충회 사수및 범민주연합전선구축' '학생회의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한 자주적 학생회건설'을, 기호2번 권오철·이진한조는 '전진하는 동악의 청년전사여! 노학동맹의 깃발들고 승리의 90년대 민중권력 수립의 그날까지 진군 총진군하자'를 내걸고 '민주적 학생회 건설의 2기선포(집행위원회로의 발전)' '민주동국발전계획안 확립' 등을 선거공약으로 각각 내세웠다。 등록최종마감일인 13일 오후5시 증선위사무실에서 룰미팅과 기호결정, 사진촬영을 마친 두후보는 오는 20일 도서관앞에서 1차 유세를 갖고 선거전에 들어간다。

제6대 총여학생회 정·부회장에는 김윤향(선학4)·권미경(국민윤리4)양이 '변혁의 몸짓으로 새 삶을 선언하노니, 여성해방·노동해방의 불꽃이 되리라 그대 동악의 여성전사여!'란 슬로건을 내걸고 단독 입후보 했다。

本社辭令

任期滿了
편집장 鄭愚錫(사회대 정외4)
취재부장 金逸(문과대 사학4)
학술부장겸 특집부장 李鍾碩(사회대 정외4)
논설부장겸 사진부장 池東哲(공과대 전자계산4)
문화부장 金敬愛(이과대 통계4)

신임부장단
◇서울캠퍼스
편집장 徐昌勳(사회대 정외3)
취재부장 李萬燮(불교대 인철3)
사회1부장 李珍珩(사회대 사회 3)
사회2부장겸 조사부장 兪權睿(사범대 지교3)
문화부장 朴英闢(사범대 국교3)
◇경주캠퍼스
편집부장 金永鎭(상경대 경영3)
특집부장 鄭暻潤(인문대 국문3)

任記者
◇서울캠퍼스
▲南宮銀(문과대 영문2)
▲金榮蘭(사범대 수교2)
◇경주캠퍼스
▲車玉景(인문대 고미사2)

〈이상 3월15일자〉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본교생·동문 9명 합격

본교 경찰행정학과 재학생및 졸업생 9명이 제39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지난 6일 치안본부에서 발표한 합격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석청호(4년在) △최관호(〃) △곽영진(〃) △김소년(〃) △김기태(89卒) △김상진(88卒) △안선헌(〃) △이선근(〃) △이강렬(85卒)

기획조정실장에 李淳容교수

7일자 법과대학장 겸임 발령

본교 기획조정실장에 李淳容(법학) 법과대학장이 지난 7일자로 겸임 발령됐다。

李교수는 1932년 12월생으로 58년 본교 법학과를 졸업, 77년 부교수로 부임했으며 지난 1월29일 법과대학장으로 임명되었다。

경주 정간실 확장

경주캠퍼스 정각원이 신축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도서관 정간실이 3층으로 확장·이전됐다。

社告

남녀 수습기자 모집

大學言論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本社에서는 어둠과 혼돈의 時代를 예리한 필봉으로 파헤쳐 나갈 意識있는 男女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서울 및 경주캠퍼스 ○○명
②응시자격:1學年 男女 在學生
③모집분야:일반 및 사진기자
④제출서류:本社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中)
⑤원서접수:서울 3月22日 오후4時까지
경주 3月15日 오후4時까지
⑥시험일자:서울 3月22日 오후5時
경주 3月15日 오후5時
⑦시험과목:1차 필기—국어·상식·작문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⑧원서제출서:본사 총무부
⑨시험장소:학림관 J201(서울캠퍼스)
원효관 A301(경주캠퍼스)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소정의 급료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동대신문사

동대신문 40주년 기념/동국정신 선양기획광고 1

거룩한 삼보의 언덕 위에

우리는 南山에 모였다.
투박해도 순수한 꿈 받쳐들고.
말씀을 듣는 귀들,
정의를 말하는 입들,
진리를 읽는 눈들.

발아래는 어둠끼리 부딪히고 혼돈끼리 싸우는
고통의 바다.

어떤 사람은 農夫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는 匠人의 가슴을 가지고
누구는 商人의 머리를 가지고
어제부터 내일까지 여기 모였으니
맑고 고울저, 티끌없는 젊음들.

말씀, 정의, 진리의 향기로
날마다 젊어지는 영원한 배움터
三宝의 언덕

새벽마다 鶴이 날아와
겨레의 아침을 싣고 가는 곳.

社 說

학원사태 해결에 적극성 바란다

'주인없는 교수회' 위상 재정립 해야

올해로 84년 역사를 지켜온 명문사학인 본교가 개교 이래 최대 수난을 겪고 있는 이 때에 학교의 한 주체인 교수회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16일 '총장서리 후보선출을 위한 전체교수비상총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金鎔貞 교수회장의 거취문제를 놓고 20여일이 경과한 지난 10일에야 뒤늦게 대의원회를 소집, 권한대행 체제로 교수회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통해 보더라도 그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또한 교수회가 88년도 출범이후 지금까지 회장단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관행상, 또한 학내의 제반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거의 한달이 다되도록 주인없는 교수회를 방치했다는 사실은 놀랍다 못해 경악스러움을 던져주고 있다.

지금 학교는 단1초가 아까울 정도로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원하고 있다.

지난 88년도 학원자주화투쟁은 우리에게 학교의 주인으로서 교수·학생·직원이 주체로 설때 학원의 올바른 발전은 가능하리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총장선거이후 일반 교수사회의 갈등과 불신의 폭은 동국 역사이래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합법 공간으로서 교수회는 전체 교수들의 권익 옹호와 자주화된 사상으로 학교의 주체임을 명심해야 한다.

유감스럽지만 4·19혁명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본교 교수사회의 어용성·비민주성은 오히려 사회의 발전에 역행하는 자가당착의 소사회를 건설, 현재의 모순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 밖에 없었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대학이 열린 공간이고 민주가 숨쉬는 장이라면 당연 그곳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본교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방치해둔 일차적 책임은 교수사회에 기인함을 명심하고 교수회는 권위주의적이고 관지향적인 모습에서 변혁의 몸짓에 얼마만큼 접근했는지 반성해 봄직한 일이다.

더이상 교수회는 현 체제를 유지하려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다른 교수단체는 어용·극좌가 아닌 동반자로써 교수집단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장선거무산 이후 오늘의 방기된 교수회에 이르기까지 교수회는 깊은 반성을 해야하며 또한 전체 교수가 하나되는 범교수회 건설을 통한 학내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악재를 호재로 만들수있는 교수회의 용단을 촉구하며 학원의 한 주체로서 교수회 위상 재정립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더 이상의 군비경쟁은 분단고착

70년대 땅굴이 냉전기 부르다니….

동구와 소련의 개혁열기에 편승해 상당한 진척을 보여왔던 남북접촉이 지난해 12월부터 확인된 제4땅굴의 발견으로 냉각기에 접어 들었다.

단순히 숫자상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더욱 신경이 쓰이는 이유는 현시기에 있어 무엇보다도 절박한 통일문제가 커다란 장애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이상훈 국방부장관의 "북한은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남침야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 남북대화에 반대급부를 표명했다"등의 발언과 정부측의 발표를 근거로 할때 당분간 통일논의의 진전은 어려우리라 전망된다.

땅굴을 확인하는 작업도중 군인들이 겪었을 어려움은 비록 인명피해는 없었을지라도 상당했으리라 생각되며, 북한이 발표한 '거부성명'도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진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군의 고통이나 한계만을 이해하고 정리할 사항은 아니다.

지난달 22일 세계일보에서 땅굴발견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편집국장과 국제부장이 보안사에 연행이 되고 안보상의 비밀을 이유로 발표를 늦춘 것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정밀정찰기며 군사위성등 고도의 정보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20여개의 땅굴을 찾아내지 못하고 70년대에 굴착한 것으로 추정된 것을 이제야 발견한 것은 오히려 국민을 불안케 했다. 또하나는 발표시기가 갖는 미묘함이다. 국회본회의가 시작되고 군구조개편에 대한 여론이 들끓을때라는 것을 고려하면 무언가 석연치 않다.

땅굴문제와 관련해 더욱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사실 군사비지출이다. 땅굴등의 대남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까. 작년에도 국방백서로 떠들썩 했던 군비경쟁이 드디어 이번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기간에 짐작은 해왔지만 작년 한해의 군사비지출이 90억달러로 북한의 1.7배를 앞질렀다는 사실은 안보에 대한 안심을 주기보다는 멀어져가는 북녘의 형제를 생각케 한다. 더구나 미국·영국·스웨덴의 연구소가 발표한바에 따르며 76년이후 지출액은 남한이 북한의 두배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정부에서는 군비에 관해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위한 평화무드조성을 위해서는 물론 남한의 사회·경제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현재 추진중인 FX두기만을 제작중단해도 대학등록금을 3~40년간 동결시킬수 있다면 그 방향이 더욱 옳지 않을까 한다.

정부는 '해결사' 자세 버려야

6공의 언론탄압 조치

時事論壇

유 선 영
〈덕성여대교수·신문방송학〉

언론에 대한 압력은 전체주의 초래

프레스카드제 부활음모 … 본질 인식 필요해

지난 2월19일 최병렬 공보처장관은 중앙일간지 편집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이비기자 추방을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할 것임과 사이비 언론신고·고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언론계 자율에 따른 프레스카드제 부활과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강화 방안을 강구해볼 것을 제의했다. 그 후 사회 일각에서는 특히 과거 5공시대의 언론 통제 방식에 놀랐던 사람들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경악과 우려의 심정으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직접 그러한 정부 방침에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를 잘 안다. 소위 말하는 사이비 언론 및 사이비 기자의 추방이 그것이다. 이러한 명분에다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프레스카드제도는 언론계 자율로 시행한다는 완화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본질을 최대한 살리고 있는 셈이다. 즉 6·29이후 자율경쟁시대에 돌입한 언론계의 빈틈을 이용한 일부 사이비 일간지와 월간지들이 광고 강요, 부당이권 개입, 가짜기자 증 판매, 약점을 이용한 금품갈취의 비리를 자행하게 됨에 따라 정부가 언론에 개입할 수 있는 사회상황이 자연스레 조성된 것이다.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언론계 비리-정부언론정책으로 연결되는 논리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동의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언론통제정책에 정당성이 부여될 조짐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전개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980년도의 시점으로 되돌아간 것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사이비 언론의 척결, 언론의 공적 책임과 사명의 실현, 영향력이 비대해진 언론으로부터 개인의 권익보호, 선정적 상업주의 언론의 청산이라는 명분이 정부가 언론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었고 그로 해서 언론통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으로 악명높았던 언론기본법과 프레스카드제도 그리고 언론통폐합이 이루어졌듯이 90년도 지금의 시점도 그러한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체계가 결코 언론체계에 관여해서는 안되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정치체계가 언론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하는 언론 자유의 제한 원리가 오용 내지 악용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들이 부지불식간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원칙으로서 당연시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또는 공적 책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양자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공적 책임이라는 명분으로 언론에 개입하는 것이 과연 언론 자유라는 명제와 어떻게 상관되는가하는 점이다.

잘알다시피 언론의 자유라는 고전적 명제는 천부적 권리로서의 자유, 생명재산의 권리는 어떠한 정치절서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타고난 인간의 권리라는 합리주의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언론은 인간의 이러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자유를 실현하는 제도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언론이 자유로워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즉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융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정치적 조건중의 하나로서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였다. 사상은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에서 사람들 사이에 교환될때 진리에 도달한다고 하는 그 유명한 〈사상의 자유공개시장원칙〉과 〈언론의 자율교정작용〉원리는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상징하고 옹호하고 지지하는 원리로 존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언론은 민주주의의 제4부라고 하는 신화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18세기와 19세기의 상황과는 달리 20세기의 언론매체는 산업화되었고 대규모화되었다. 즉 언론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성을 증시하게 되었고 자본이 집중화됨에 따라 소수 독점 현상이 초래되었다. 그 결과 상업주의의 폐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 소수의 견이 사장되어버림으로써 언론의 자유는 소수의 큰 목소리를 위한 자유로 되는 부작용이 심화된 것이다. 여기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말은 언론이 자신의 목표를 사회전체의 목표와 일치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언론과 사회 압력단체-자유 다원주의 사회에서는-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지지 정부나 국가의 강제력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즉 외부의 통제나 제한으로부터의 자유는 그대로 고수하면서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은 전혀 배타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대의 우리정부는 언론의 공적 책임을 내세우면서 정치가 언론계에 개입하는 명분과 정당성을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그것을 우리가 위험시하고 우려하며 또다른 언론통제로 인식하는 이유는 해결사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언론에는 결코 어울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현대사회의 복잡성 그리고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매력적인 관념속에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언론여건을 교정하기 위해 정부에 의존하게 되면 그 국가는 전체주의로 흐르게 된다. 결국 여하한 이유에서건 언론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체주의를 가로막는 우리의 주요한 안전판을 잃어버리는 셈이되고 동시에 전체주의를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됨을 의미한다.

학생은 재정확보 위한 돈줄일 뿐…

—— 등록금 인상의 오류

視角

등록금의 교직원연금은 부당
재단의 올바른 변화가 최대관건

학원자주화 투쟁이 시작된 이후 매학기 초마다 가장 커다란 관심사의 하나는 역시 등록금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한다. 그것은 우리주위에 등록금인상에 개의치 않을 정도로 풍족함(?)을 누리는 대학생이 많지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에 따른 일반적인 해결방식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는 교육재정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국고보조금을 확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방비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으며 그뿐 아니라 국민이 내는 교육세 조차 교육환경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국방비 내지 다른곳에 유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86·88년에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그리고 주한미군 유지비등이 교육세에서 유용되었으며 그것은 전체 교육경영재산 기준령 3조 1항 5조에 따르면 각 대학으로 최소한 재단의 전입금이 25%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학교 재단은 1%도 전입금을 들여오지 못하는 실정이며, 오히려 재단에서 지급해야 할 연금조차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불되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불되고 있다. 특히 작년 8·31 부정입학 사태로 볼때 가장 커다란 문제는 재단이 재단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세의 절반이상을 차치했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FX차세대 전투기구입(수십억 달러로 추정)을 철회한다면 근 30년간 전국 사립대생의 등록금동결이 가능하다고 한다. 둘째로, 재단의 전입금을 확충해야 한다. 교육법에 따르면 '재단의 전입금은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를 보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학교대체재원을 반교육적인 부정입학을 통해 확보하려는 비교육자적 자세로부터 기인한다. 따라서 지금당장 재단의 교육용 재원의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히 공개하고, 또한 그것을 수익사업 체계로 전화시키고 수익금을 학교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 세째는, 등록금 책정에 학생들의 의사가 철저히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교육세가 교육환경에 쓰여지지 않고, 재단에서는 전입마저 들여오지 않는데 학교에서는 우리의 등록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 88년 학자투과정속에서 우리의 등록금이 기관원의 사찰비용으로, 행정대학원의 장학금으로 지불된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예산이 교육외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예결산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 대학의 주체가 교수·학생·직원이라는 흐름은 역사의 대의를 인정한다면, 학생이 학교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등록금 책정때 참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이다.

이상에서 짬게나마 등록금의 인상분은 꼭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민주적 운영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알았다. 그런데도 학생들에게 '수익자 부담'을 내세우며 돈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만으로 인상을 주장하는 학교당국이나 교육세조차 교육환경에 쓰지않는 정부당국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가장 동국대의 시급한 과제는 재단이 올바르게 변화되야 하는 것이다.

김 주 한
〈이과대 수학과〉

東國漫評 임치성

◇고삐 먼저 잡기

수원대학보투쟁 지지광고

"수원대 학보기자에 대한 부당징계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대학언론의 사명과 존재가치마저 무시한 이른바 「80호 수원대 학살사태」는 전국대학신문사상 초유의 사건일뿐 아니라 언론의 존재기반인 정론직필의 필맥을 무참히 짓밟는 일대 「폭거」이다. 또한 이는 수원대학교당국의 경직된 학사운영과 일부 해당 실무기관의 상식을 벗어난 비민주적인 언론탄압이 분명하다.

이에 서대기련 31개사는 이번 사건을 대학언론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생각하며 동지적 연대감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수원대학보사의 정당하고 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경과보고 진실의 펜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

89년 12월23일 제80호(1월1일자)신문 제작들어감.
27일 주간교수가 일방적으로 제작중지 통보
30일 주간교수 독단으로 원고를 수정하고 16면을 8면으로 축소 발행
90년 1월4일~5일 학교측의 일방적 처사에 대한 보고대회후 신문소각
9일 학교측이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열어 학보(80호) 임의 소각및 행정업무 방해로 3명 퇴학, 2명 무기정학 징계처분.
2월7일 수원지방법원에 학교측을 상대로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정투쟁돌입.
8일 항의농성 돌입.
23일 1차 심리
3월9일 2차 심리, 현재 30일째 농성투쟁.

서울지역 대학신문기자 연합회

총학 장학생 선발공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1만 동악학우와 함께 학원자주, 학원자치의 기치를 힘차게 펄럭여온 제21대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2학기동안의 학내 수익사업의 결과물로서 축적된 잉여금을 '총학생회 장학금'으로 학우여러분들에게 되돌려주고자 합니다.

1. 대 상: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
2. 선발인원: ○○ (단과대별 2명 예정)
3. 장학금액: 등록금 타결 후 가성회비 수준
4. 접수기간: 90년 3월12일~3월17일(토요일)
5. 제출서류: ●신청서 (학생복지위원회 소정양식) 1통
   ●학부모 과세증명서(재산세) 1통
   ●본인 및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재학증명서 1통
6. 선발기준
   ① 수혜학기 복학생, 여타 장학금 수혜학우는 제외
   ② 동점일 경우 재산세, 학부모 부재여부, 성적순으로 선발
   ③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
   ④ 지난학기 총학생회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
7. 심사위원: 학생복지위원회 국장급 이상 5인
   각 단과대 복지위원 11인
8. 선발 공고: 90년 3월21일 (중앙대자보)
9. 신청서 교부: 학생복지위원회 사무실(혜화관 1층, 교내전화 2185)

제21대 총 학 생 회
학 생 복 지 위 원 회

'두개의 한국' 책동…반통일적 음모

신데탕트와 조국통일

〈2〉

◇글 싣는 차례

1. 페레스트로이카와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
2.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
3.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북한의 대응
4. 기간의 통일논의 정리
5. 신데탕트 시대의 조국통일론

친미의 아성으로 굳게 인식되어 지던 이곳 한반도 남단의 땅에 '양키고홈 미제축출'아란 말이 대중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지도 벌써 5년여가 지났다.

이땅의 주인인 한민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군이 진주한 1945년 이래로 민중들은 분단이라는 고통과 일본제국주의에서의 해방이 아닌 또다른 종속의 길로들어선 것이다.

80년 광주항쟁을 계기로 미국의 실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끊임없는 분석으로 미국을 모르고서는—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을 모르고서는—조국통일과 민족해방을 성공시킬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것이다.

이글은 그런 문제제기하에 변화하는 미국의 대한반도전략의 실체를 역사적, 현실적으로 검증해보고 현재의 신데탕트를 조국통일로 연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미국의 지배전략사

제국주의국가간의 식민지재분할과 세계지배를 목적으로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미국은 자본주의국가들의 지배권을 확립한다. 그리고, 미국에 의한 자본주의제국의 통합하에 제국주의식민지간의 모순을 중심으로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은 "전세계적 규모에서의 3대혁명세력에 대한 반혁명전략"으로 정리된다.

즉, 소련을 중심으로한 사회주의혁명세력,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세력, 미국내의 혁명세력을 봉쇄한다는 전략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를 대소봉쇄를 위한 냉전이념의 전쟁터로 인식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이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을 미국의 의도대로 참전시킴으로써 현실화되었다.

한반도를 대소봉쇄 내지는 냉전의 전쟁터로 인식하던 미국의 전략은 소련을 봉쇄하기위해 추진되던 미·중·일 삼각체제형성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어 '닉슨독트린'으로 표현되는 긴장완화정책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것은 74년 남북적십자회담과 72년, 7·4남북공동성명으로 가시화됐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상대적 열세에 직면하여 양극체제에서 힘의 균형에 입각한 다극체제로 개편하고, 중소갈등의 기회를 전략면에서의 소련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편으로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빌미로 남북한 교차승인과 유엔동시가입이라는 두개의 한국정책을 노골화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러나, 76년의 월남에서의 패배, 79년 니카라과 산디니스타혁명성공, 이란의 왕정전복등으로 헤게모니의 위기를 맞본 미국은 레이건정권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형식의 좀더 강력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것이 이른바 저강도전쟁전략(Low-Intensty Conflict)이라는 것이다.

저강도 전쟁 독트린

흔히, '레이건독트린' 또는 '선택적 봉쇄정책'이라고 알려진 '저강도전쟁 독트린'은 베트남에서의 실패와 이란, 니카라과혁명을 교훈삼아 소련의 주변부의 민족해방운동을 저지하고 미국의 지배권을 회복하고 유지하려는 새로운 세계지배전략이다.

그것은 특히 70년대의 단순한 대소봉쇄가 아닌, 증가일로에 있는 제3세계국가들의 자주·반제국주의와 민족해방운동에 대응하여 반혁명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미국의 지배적인 전략을 의미한다.

더욱이, '저강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선입견도 저강도전쟁의 진짜의미를 올바로 반영할 수 없을 만큼 실제의 저강도전쟁은 일반대중차원의 정치·경제·사회·심리적인 다양한 전선에서의 총체전(Total War)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낸 미 국방성과 국무성은 제3세계갈등이 내적요인(즉 불평등, 빈곤, 굶주림, 교육의 결여, 인권침해)과 외적요인(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제3세계갈등의 원인분석을 토대로 국무성의 지원프로그램과 같은 지원메카니즘의 창조는 저강도전쟁의 방향성에 대한 명백한 전략은 군사적 수단이 저강도전쟁의 한분야에 불과함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수행하는 저강도전쟁의 대상은 급속히 커나가는 자주적 반미운동세력을 봉쇄, 섬멸키 위한 새로운 반혁명전략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남한내의 반미운동세력의 민족분열음모파괴와 조국통일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한예로 87년 6월항쟁이후 학생들의 조국통일염원이 폭발적으로 분출되자 처음에는 7·7선언으로 대응하다, 나중에는 문목사방북구속, 임수경양 구속으로 그들의 속셈을 드러냈고, 또 한편으로는 가두방송차량을 이용한 기동성과 하루 30여만장의 '우익 총궐기'와 '좌경세력 척결' 유인물을 살포하고, 2백여개의 플래카드를 내걸 정도로 조직력을 과시하는 '자유총연맹'들의 극우세력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좌우대결, 보·혁논리로 이미 친미반민주야합이라는 구조물을 만들어낸 미국은 다른한편으로는 반미투쟁의 주요표적을 은폐·희석시키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두개의 한국정책

69년 대통령에 취임한 닉슨은 미국내의 정치경제적 위기심화와 국제적으로 주도권을 놓칠 위기에 처하자, '평화정책'을 부르짖으며 데탕트분위기를 주도한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이 한국에서는 두개의 한국정책으로 표출되었다.

두개의 한국조작책동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던 종래와는 달리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음을 반증하는 한편, 국제승인을 배경으로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미명아래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고 두개의 완전한 주권국가로 조국을 반분하겠다는 흉계가 도사린 것이다.

두개의 한국조작책동은 그동안 남북한교차승인과 유엔동시가입책동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련의 개혁·개방화 물결과 동구권의 변화로 미국의 두개의 한국조작책동은 더욱 치밀하게 진행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지 않은 가운데 현재의 군사 분계선을 그대로 국경선으로 확정하여 국제적으로 공인하고 합법화해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으로 지난1월22일발표된 '친미반민주야합'이라는 식민지 안정화구도와 긴밀히 관련된 것이다.

두개의 한국조작을 깨뜨리고 통일로

소련과 동구권의 개혁을 자본주의로의 회귀라고 여론공세를 강화하는 미국과 노정권의 의도는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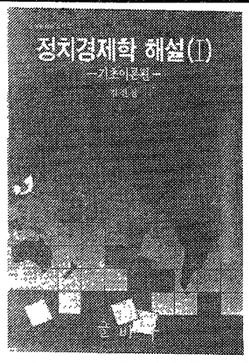
앞서 말한 사회·정치·경제·문화적 총체전인 저강도전쟁전략으로 군사적 모험보다는 민중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을 이반시키겠다는 의도를 두개의 한국조작책동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남북한통일의 주객관적 조건이랄 수 있는 이러한 국제정세를 올바로 이해하고 두개의 한국조작책동을 반대해나가는 투쟁속에서 조국통일은 결코 먼 미래의 환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올해가 조국통일의 열쇠가 되고 민주화의 고리가 될수 있다는 중요한 헤라는 것을 바라보고, 현 정권과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미국의 음모를 격파하는 것이 진정 올바른 정세관이라 하겠다.

〈사회부〉

휴전 협정,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때
미국, 군사 외적 개입 강화
인권등 강조로 제국주의 본질 숨겨



정치경제학 해설(I)

김 진 철 저

書評

김진철 교수가 이번에 집필한 '정치경제학 해설(Ⅰ)'은 지금까지 이미 출간되어 있는 몇 권의 정치경제학 교재와 더불어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도들에게 도움을 주게 될 또 하나의 큰 수확이다. 이 책 역시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문서이지만, 입문서라고 하여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단순히 경제학 지식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고, 변증법적 유물론과 같은 철학분야나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등 여러 분야의 광범위한 지식과 경제학 지식을 고루 갖추고 오랫 동안 연구한 사람이라야 간신히 이해라 수 있는 참으로 어려운 책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난해와 고전의 해설서를 쓰자면 이러한 여러 분야의 학문을 깊히 연구하고, 또 '자본론' 1, 2, 3권 전체의 체계를 완벽하게 재구성하여 그 속에서 핵심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런 어려운 작업을 이번에 김진철 교수가 해낸 것이다. 특히 정치학을 전공한 교수가 경제학까지 깊히 연구하여 '자본론'에 나오는 자본주의 경제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데 대하여 경제학도의 한 사람인 나로서는 그저 감탄할 따름이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편 서론에서 역사적 유물론의 여러 명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 핵심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이다. 생산관계란 (1) 생산수단의 소유관계, (2) 생산자들간의 지배·예속관계, (3)생산물의 분배관계이다. 그런데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에 질곡으로 변하면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로 이행하는 법칙에 따라 낡은 사회구성체는 새로운 사회구성체로 이행하게 된다(부정의 부정의 법칙).

다음에 제2편에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기본적 운동법칙을 다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상품과 화폐는 '자본론'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은 구체적 노동과 추상적 노동이라는 이중성을 갖게 되고, 구체적 노동이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받자면 상품의 전면적인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상품은 사용가치와 가치를 가지는 '대립물의 통일'로써 등장한다. 상품이 가지는 이러한 대립과 사적노동이 바로 사회적 노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 모순 때문에 여기서 잉여가치와 착취, 무정부적 생산과 이윤율 저하, 공황과 실업 등 자본주의의 온갖 모순이 제기된다.

상품과 화폐분석에 이어 제4장에서는 자본과 잉여가치를 다루고 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고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매매되고 있다. 그런데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인 이상, 그 가치는 가치법칙에 따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결정되고, 노동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의 가치 역시 가치법칙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노동력의 매매는 외관상으로는 등가교환의 형태를 취하며, 임금은 항상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는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창조한다. 이 차이가 바로 잉여가치를 구성한다. 마르크스가 노동력과 노동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여 잉여가치의 비밀을 폭로한 것을 두고 엥겔스는 '위대한 발견'이라고 칭송한 바 있었다.

잉여가치의 분석에 이어 제5장에서는 자본축적을 다루고 있다. 자본축적이란 요컨대 잉여가치의 자본으로의 전화를 뜻한다. 자본가는 하나의 '인격화된 자본'이고, 자본은 그 속성이 항상 보다 많은 잉여가치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운동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고도화되고 이윤율은 점차 저하하는 경향을 띄게 된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는 만큼 가변자본, 즉 임금의 지급에 사용되는 자본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산업예비군(실업자)이 대량으로 형성된다. 그리하여 노동자는 항상 실업의 위협과 빈곤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한편 이윤율의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생산의 끊임없는 확대는 수요 부족을 초래하여 공황으로 나타난다. 이윤율 저하의 법칙은 계속하여 실증적 연구를 요하는 부분이긴 하나, 이책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러한 법칙의 경향성을 무리 없이 설명하고 있다.

다음에 제6장에서는 '자본론' 제2권에 해당하는 내용인 자본의 순환을 다루고, 제7장부터 제10장까지는 '자본론' 제3권의 내용인 평균이윤과 생산가격, 상업자본과 상업이윤, 대부자본과 지대 등을 다루고 있다. 평균이윤과 생산가격, 가치의 가격으로의 전화, 잉여가치와 이윤율의 관계 등은 시장경쟁과정을 도입하여 설명해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요령있게 설명하고 있다.

김 영 청

(경상대교수)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재구성한 역저

社 告

제8회 학생논문 현상모집

본사에서는 본지 창간 40주년 및 4·19 30주년기념 '제8회 학생논문상'을 제정, 여러분의 논문을 기다립니다. 30년전 독재에 항거하여 정의의 함성으로 여울졌던 그날의 의지는 오늘에도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4·19의 참뜻을 새기며 오늘에 이식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광장에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응모자격…본교생에 한함(대학원생포함)
◇분 량…2백자원고지 50매가량
◇마 감…4월9일(월) 오후4시
◇발 표…4월18일자 본지지상(제1046호)
◇접 수…본사 총무부
◇상 금…당선작 1편(상장및 부상20만원)
가작 2편(상장및 부상15만원)

◇주제
1. 4·19이후의 변혁운동을 통해 본 외세의 영향
2. 초기불교의 해방사상
3. 교육의 자주화를 위한 고찰
4. 올바른 통일방안
5. 현시기 대학언론의 위상과 역할

동대신문사

심볼마크 설명

동국인의 집

●본 대학교의 상징인 교표를 중심으로 본교 상징건물인 명진관(석조관)의 출입문을 주제로 도형화 하였으며 '동국인의 집'임을 표현함으로써 재학시 강의를 받던 추억을 회상토록 하였음.

●주위의 무늬는 체인과 같이 연결되는 동문, 교·직원, 재학생의 협동을 상징화하고 있으며, 상단부분의 「 」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ㅂ'자의 변형으로 '널리 이롭게 한다'는 본교 건학이념인 자비정신을 표현함.

●색상은 청색과 붉은색을 조화시켜 창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국인 체인제실시는 새로운 동국을 창조한다는 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첫눈에 동국대학교라는 이미지가 와닿도록 시각적 효과를 살림.

'동국인의 집' 가맹업체 모집

1. 사업개시일:1990년 3월 2일부터
2. 모집기간:수시
3. 신청기간:동국대학교 후생복지과
4. 가입자격:①동국대학교(원) 졸업생 및 그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②교·직원과 재학생 및 그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5. 해당지역:전국대상
6. 가맹업종:특별히 제한없음(예:상품판매, 시설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등)

'동국인의 집' 체인제실시 안내

동국대학교에서는 동국가족의 애교심 함양과 보다 효율적인 후생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교·직원과 재학생, 동문 및 그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각종 업체를 가맹점으로 하는 '동국인의 집' 체인(Chain)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국인의 집'은 올바른 소비생활 유도로 동국가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서로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과 공동체 실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동국발전의 새장을 여는데 있습니다.

'동국인의 집' 할인카드 회원모집

1. 카드사용일:1990년 3월 2일부터
2. 회원가입기간:수시
3. 신청장소:동국대학교 후생복지과
4. 회원가입자격:①동국대학교(원) 졸업생 및 그 직계가족
②동국대학교(원) 교·직원과 재학생 및 그 직계가족
5. 회원가입방법:①졸업생…희망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급
②교·직원 및 재학생…자동적으로 회원이 됨(※직계가족 이용도 가능함)

*복지에 관한 좋은 의견이있으면 후생복지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후생복지과로 문의 바람.

할인적용대상업체

구분	업체명	위치	전화	할인및 편의제공
한방병원	동국한방병원	서울 방배동	(02) 536-5599	재학생:의료보험비급여의 20% 졸업생:의료보험비급여의 10%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경주캠퍼스내	(0561) 3-1402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직계가족:의료보험 비급여의 10%
병원	동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포항	(0562) 73-8111	재학생:의료보험비급여의 30% 졸업생:의료비보험비급여의 20%
	동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경주병원 (신축중)	경주캠퍼스내	(0561) 41-2416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직계가족:의료보험 비급여의 10%
	제일병원	중구필동 (본교후문앞)	274-1231	재학생:의료보험환자 비급여진료비의 20%
여행사	(주)아주관광 (본교 지정여행사)	중구 서소문동	753-5051	적용대상자:재학생 및 졸업생과 그 직계가족
법률상담	김동정 변호사	서소문	753-5660	본교 상임 변호사(동문)
	김익상 〃	문래동	676-0021	본교 상담 변호사(〃)
	김정웅 〃	태평로	753-1870	〃 (〃)
	송진승 〃	〃	533-0173	〃 (〃)
	정영덕 〃	종로2가	735-5561	〃 (〃)
서적	동국대학교 역경원	서울캠퍼스내	267-8131	본교 역경원 출간서적 각권 30%할인

'동국인의집' 가맹 등록업체

구	업체명	대표(입학년도)	위치·전화	할인및 편의제공
도자기	한국도자기(주)	조현화 (본교김반송교수)	757-5578~9 776-5800 540-6700	한국도자기 전제품 15%할인
사진	세한스튜디오	송광수 (85.행정대학원)	중로구 관철동 278-2220~1	20%할인(정찰가격)
철강가공 및 판매	부광스리팅공업(주)	류형진 (85.행정대학원)	영등포 영등포1동 848-1553	칼라, 아연도강판, 인슈퍼판넬:협의결정
경비 및 청소영역	청송종합개발(주)	안보순 (88.행정대학원)	마포구 공덕동 703-1235~8	경비:내무부 고시기의 15%할인
실내장식	미진장식	송선문 (63.식품공학)	중구 삼각동 732-8850	커튼, 카페트, 롤(바닥재), 인공잔디 시공:10~20%
골프세트 및 골프용품	낙원 골프상사	박장석 (88.행정대학원)	강남구 논현동 511-2277~9	골프용품 및 골프세트:전품목 10%할인
인쇄	광진인쇄사	조영희 (73.정치외교)	중구 충무로3가 273-7068	부가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10%할인
사무용가구	유진산업	이창장 (86.행정대학원)	중구 오장동 274-5551~3	정품목 5%(정찰가격)
섬유	엔지니어링 프라스틱(주)	이동하 (86.행정대학원)	송파구 잠실동 415-6026	섬유(면직물), 엔지니어링 프라스틱:협의결정
정수기 바이오 식기류	(주)동방 바이오	민일기 (88.행정대학원)	은평구 갈현동 357-5501~4	정수기, 바이오식기류:30%할인 도소매
가구	세진가구공예사	김문환 (60.정치외교)	종로구 교남동 736-7887	세진가구 전제품 정찰가격이 10%할인
보일러	로보트 보일러	방승운 (66.경영)	송파구 풍납동 478-6511	로보트보일러:15%할인
비디오 영화제작	한국 브이티알	박공서 (88.행정대학원)	중구 예장동 267-5162~3	비디오, 영화:협의결정
스키 및 스키복	나폴레온스포츠	박형돈 (66.농업경제)	중구 충무로2가 275-7577, 7477	·스키및 스키복:30%할인 ·세일시:35~45%할인
방수제	(주)성문산업	손학중 (65.농업경제)	영등포구 문래동2가 675-0531	성문스타쉬트, 아스팔트루핑, 특수제지등:협의결정
호텔	(주)호텔 아미가	신철호 (69.무역)	강남구 논현동 511-4000	객실료:10%할인
도예 및 공동주택 관리	(주)석정	조수범 (87·행정대학원)	서초구 서초동 566-5263	전통도자기:15%할인 경비:내무부고시기의 15%
음식점	오세메리	박옥임 (88·행정대학원)	강남구 논현동 548-0666~7	철판구이 전문:10%할인
호텔	고향장호텔	최남일 (88·행정대학원)	강남구 논현동 542-1511	객실료:20%할인 단체이용시:30%할인
행사전문기획	창기획	이창배 (81·연극영화)	중구 필동 279-1285	연예, 음원, 체육대회및 각종 공연:협의결정
직물	대아직물	이필구 (65·농업생물)	종로구 예지동 265-8740	양장지 20%할인:도매 (광장2층 1259)
농·축산물	쌍림농산	허동선 (73·행정학과)	송파구 가락동 600 404-8911	소체류·파일:싯가의 10%할인
건강식품	고덕장수 건강원	박종욱 (82·경제학과)	강동구 고덕동 429-0765	건강식품일체:협의결정
부동산 중개	홍명부동산 중개(주)	장병무 (87·행정대학원)	송파구 잠실동 416-3947~9	법정수수료의 30%할인
도료 및 인쇄잉크	원색페인트	김종화 (67·일학과)	중구 을지로3가 279-4147~8	페인트, FRP수지:고시가의 15%할인
신문 비디오테이프	대한국제신문사영상 문화센타	이영호 (86·경영대학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780-0291	비디오레이프(방송지료):30%할인
건축자재	(주)건한	정성욱 (86·행정대학원)	송파구 송파동 419-7500	원가매입금의 10%만 아윤판매 도소매
화환 화분	동백화원	이기섭 (87·경영대학원)	중구 충무로4가 272-5509	화환, 화분, 양란:협의결정
금속절삭기	(주)국일 공작소	윤승덕 (86·행정대학원)	구로구 구로5동 679-7539	6%할인(VAT별도)
제조인쇄	(주)산홍인쇄	박홍일 (88·정보대학원)	종로구 교남동 730-8171	인쇄물(원자재 제외):20%할인
여행사	(주)제주 관광여행사	한제욱 (88·정보대학원)	제주시 연동 46-6115	서울사무소:776-8574
사진	보고스튜디오	이광순 (88·정보대학원)	종로구 청진동 732-6934	실내원판촬영:20%할인
사무용가구	제일가구	고성득 (89·경영대학원)	중구 예관동 266-6868	대량구입시 협의결정 판매가격의 5~10%할인

동 국 대 학 교

100—715 서울 중구 필동3가 26 전화:(대)(02)267—8131~9 (교)3555, 3556
(직)(02)277—5405

학생대중과 '통일 단결'의 한마당으로

제22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즈음하여

○… 오는 28일 제22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가 치 …○
○… 뤄진다. 그동안의 총학생회 정·부회장선거나 단대 …○
○… 장 선거 혹은 과학생회장 선거를 지켜본 사람이면, …○
○… 누구나 어느정도는 알겠지만, 대학에서의 선거라는 …○
○… 것이 학생대중과의 통일·단결이 아닌, 학생대중을 …○
○… 표밭으로 보는 경향등이 나타났었다. 또한 각 입후 …○
○… 보자간의 인신공격 후보자 주위에 무성한 각종 악 …○
○… 성루머등이 나타난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
○… 이 글은 그동안의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
○… 지적, 올바른 총학생회장 선거의 청사진을 나름대로 …○
○… 제시하는 의미에서 마련하였다. ◇편집자 …○

"우리들이 뭐 표찍는 기계인가요"

"대학선거가 제도정치권 선거와 다른게 무엇이 있어요. 각종 악성루머 인식공격. 이래서야 되겠어요"

"과 토론회는 특정 후보 밀어주려고 하는건가요?"

"선거운동원들은 '아부꾼'들 인가요"

"학생들이 총학생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총학생회장 선거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공약사항이 너무 정치문제 일변도 예요"

이상은 그 동안의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본교생들의 다양한 목소리이다.

과총회와 토론회는 특정 후보의 선전장인가.

해마다 본교에서는 학기초에 의례적으로 과총회가 열리고, 선거시기와 맞물려 과토론회나 총회에서 선거와 관련된 안건이 논의된다. 그런데, 그 동안의 선거관련 토론회나 과 총회는 진행상에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사회자나 몇몇 학생들에 의해 회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특정후보를 지지하자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의 학생회에 운영방식이 선거라는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었던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학생회 간부(단대장, 운영위원, 집행부)들의 학우대중들로부터 창조적이며 자주적인 지혜를 귀담아 듣지않는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인 학생회사업 작풍, 학우들을 주체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등이 선거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볼수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극복돼야 한다. 이번 선거과정에서는 과총회나 토론회에서 선거와 관련해 선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어떤 후보자의 정책은 어떠하냐등에 대한 학생들간에 민주적이고 솔직하고, 담백하고, 때로는 치열한 논의가 절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때 만약, 소수에 의한 과총회나 토론회가 진행·특정후보의 선전장이 된다면 그것은 학우들을 표밭으로 밖에 보지 않는 작태라고 할 수있다.

학생들은 표찍는 기계이기를 자처하는가.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중권력의 창출과정이다.

이렇게볼때 학생개개인이 '후보자 공청회' '과 총회'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이야기하고 어떠한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도 하고 비판도 하는 그러한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 동안의 '선거' '일상적인 학생회활동'에서 보여주었던 학생들의 무관심과 방관자적 태도는 스스로 표찍는 기계이기를 자처하는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들 '아부꾼'으로 전락하려나

선거때만되면 '학생회관' '도서관' '명진관' 등국관에서 정장을 하고 "기호○번 누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고개를 90°로 숙이는 운동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물론 어떠한 의미에서는 일면 불가피한 모습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학우대중들에게 과연 좋게 받아들여지는가?

오히려 선거운동원들이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해 내고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모습들이 대학선거의 위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옳은 모습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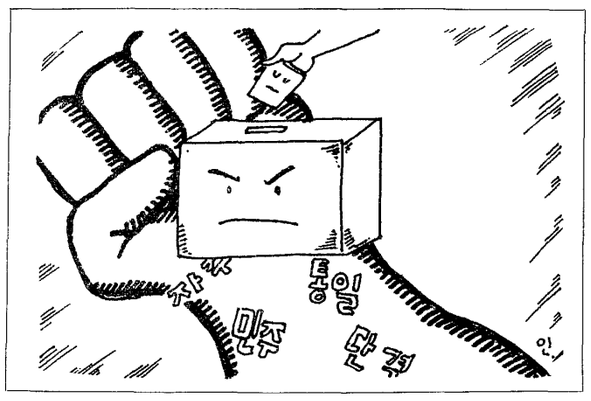
또한, 학연, 지연 등을 이용해 '사탕발림'식으로 학우대중을 접하는 것은 학생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

'통일 단결'선거과정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우리는 선거시기때 통일 단결이라는 구호를 흔히 듣게 된다. 과연 통일단결은 어떠한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통일단결이 단순히 각 정파간의 공동입후보, 공약상의 양보와 타협인가? 아니면, 단순히 선거후 상층위주의 갈라먹기 식으로 집행부를 구성하는 것인가?

그것은 결코 아닐것이다. 지난해 학생회선거과정과 집행부 선임과정 학생회 사업일반을 보라. 명백하지 않은가?



주의 갈라먹기 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대중들로 부터 검증받고 학생회에서 단련된 학생들을 공개적,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에서 선거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나.

선거에서 학생회 사업과는 무관하게 대권을 잡으려는 태도는 지양돼어야한다.

선거는 엄연하게 학생회 사업의 일환이다. 다시말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학생대중이 학생회 사업에 참여, 기간의 학생회사업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기간사업에서 노정되었던 문제점들을 혁신할수 있는 정책들을 입후보자들과 함께 마련하고,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 학생대중이 주인인 과 토론회, 학년별 토론회, 과 총회등 선거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제22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양 후보에 바란다

학원병영화의 보루였던 '학도호국단'을 학생들의 단결된 힘으로 분쇄하고, 학생들의 자치조직인 '학생회'를 건설한 이래 학생회는 학생대중의 일상적인 이해와 요구에서부터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수렴, 꾸준히 구현해 왔다.

그러나, 학생운동권내에서의 분열과 사소한 이견에 따른 감정싸움등으로 인해 정파간의 골이 깊어진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 실정이다. 이러한 것들은 기간의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도 각종 악성루머, 인신공격등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과거에는 마이크 쟁탈전도 있었음)

진정 이번 선거에서는 학생회 강화를 위한 통일 단결이라는 전제하에 상호간의 비방과 감정싸움등을 지양, 현실성있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학생대중들과 함께 학생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현 정세를 보라 3당 합당이라는 친미보수야합이후 정부의 분단고착화기도와 민족민주운동 진열에 대한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만약, 분열, 상호비방(비판이 아님)이 나타나게 될 경우 정부와 제도언론으로 부터 받게되는 악의에찬 흑색선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에 그대로 말려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학우들로 부터 유리, 스스로 고립의 무덤을 팔 것인가?

〈이진형記者〉

정치권 방불케했던 선거풍토 불식 절실
대중과 유리되면 스스로 무덤 파는꼴

지난해와 같은 왜곡된 통일단결의 형태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낙선된 정파의 경우, 비록 갈라먹기식으로 집행부를 일부 맡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속에서 그들 정책을 구현해 낼수 없었다. 이러한 것은 또 각 정파간에 자기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안된다는 '피해의식'을 낳았다. 또 이러한 것은 정파간의 감정대립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심지어, 학생회를 자신의 정파가 장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행부들이 사업방기를 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했다. 작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혁신하는 학생회, 올바른 학생회 건설의 관점에서 학생대중들과의 통일단결을 전제로 하지 않았을 경우 통일단결은 왜곡되고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정파에서 총학생회장이 되든 집행부의 구성은 상층위

제4기 전대협 임시의장에게 듣는다

인터뷰

송 갑 석
전대협 임시의장
〈전남대·총학생회장〉

백만 학도의 순수한 열정 굳게 믿어
"제 민주 세력과 연대 반 민자당 투쟁 벌일터"

"전국의 백만학도가 지닌 순수한 열정과 뜨거운 가슴을 굳게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속에서 만이 전대협의 굳건한 위상이 세워질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일 인터뷰차 전남대총학생회실로 찾아간 기자에게 첫소감을 밝히는 전대협 제4기 임시의장 송갑석(무역·4)군은 여린 체구와는 달리 조용하면서도 굳은 인상을 보여준다.

송갑석군은 지난달 21일 전대협 임시중앙위원회 제4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오는 4월10일경 전국 1백60여개 대학 총학생회장이 참석하게될 대의원총회에서 공식인준받기전까지 임시의장으로 불리게될 송의장은 전대협의 당면사업에 대해 "전국 24개 지구의 연대수준을 강화하고 역량이 뒤떨어지는 지구의 수준을 높여 전체적으로 평준화 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한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방에서 전대협의장이 선출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제4기에 이르기까지 전대협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에 있으며 특히 90년도 정세속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5월투쟁에 모든 투쟁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모습으로 남대협에서 의장직을 맡게 되었다고 봅니다.

—3당합당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민자당의 출범은 친미보수정권을 식민지에 유지·강화시키려는 미국의 음모입니다. 이는 88·89년에 진행된 광범위한 조국통일투쟁으로 반공이데올로기가 극복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미국과 노정권이 획책한 장기집권의 사전작업으로 올 10월에 노골화될 2개의 한국정책과 분단고착화 정책의 전단계에 다름아니라 봅니다. 따라서 우리 전대협은 민자당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들과 통일적 대오를 형성해 반민자당 분쇄투쟁과 함께 반미투쟁에 온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올해의 조국통일투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지난날의 조통투쟁은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미국과 노정권의 의도를 상당부분 저지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의 잠재된 통일열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대중성면에서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민자당의 반통일성을 폭로·타격함과 아울러 남북한 자주적 교류 요구투쟁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정계개편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어디있다고 보는가.

=가장 큰 증거로는 역시속에 나타난 미국의 본질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껏 제3세계와 남한에서 보여져왔던 미국의 정보정치공작이나 식민통치 양성화방법에 비추어 당연히 미국이 사주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미대사 그레그가 과거 일본의 자민당창당이나 전학련파괴에 기여한 역할을 따져보면 그레그의 작품이 분명합니다.

—합법정당을 바라보는 입장은 어떠한가.

=기존 보수야당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애국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의 필요성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당면에 있는 반민자당 분쇄투쟁을 위한 통일적 대오를 이루어내는데에 장애가 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모든 논의의 중심은 앞서 말한 통일대오 건설방향에 있어야 합니다.

—올해로서 광주항쟁 10주기를 맞아 전대협의 계획이 있다면.

=전대협의 출범식이 오는 5월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백만학도의 5월투쟁에의 결집이 출범식속에서 이루어지며, 이후 전국의 모든 민주단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전대협탈퇴 학생회를 어떻게 보는가.

=지배세력의 보—혁구도가 학원내까지 침투한 것에 연류되었다고 규정짓고 싶습니다. 작년 충북대의 경험으로 보아 그 대학 총학생회장이 탈퇴를 선언했다고 해서 학생들까지 탈퇴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대협은 탈퇴대학 학생들과의 직접적 결합을 통해 전대협 사수의 지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전총련 건설은 어떻게 되는가.

=뚜렷한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각대학의 민주적 의사수렴체계와 집행위원회체계가 확고히 대중속에 뿌리내려진 기반위에 전대협사업진행의 주체가 확대되는 과정속에서 자연히 건설될 것입니다.

—지난날의 전대협을 평가하자면.

=정치편향으로 일관된 사업진행이 대중적 투쟁을 촉발시키기 못한 것같습니다. 앞으로 학원자주화투쟁등 학우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총체적으로 담보해내는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식민지 남한에서 청년학도에게 주어진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에 대한 긍지와 신뢰를 가슴에 품고 전대협과 함께 가열찬 투쟁을 벌여 나가자"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고 전하는 송의장은 "절대로 적들의 포로가 되지않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백만학도 가운데에 힘차게 서있겠다"며 기자에게 굳은 악수를 청해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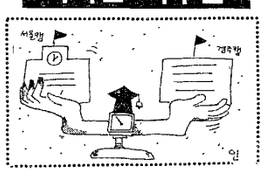
〈유기용 記者〉

머나먼 자주권

작금의 상황은 자주권을 향해 어렵고 고단한 과정을 감내해오던 경주캠퍼스 학생들에게 또 한번 고군분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일 경주 교수회는 대의원회를 열고 부총장직을 지내던 金炯秀교수가 사퇴함에 따라 부총장 선거건을 논의한 끝에 申國柱총장서리와의 면담 후에 교수총회를 열어 최종 결정키로 했다.

"현 申총장 서리의 임기가 한시적이기때문에 당장 부총장 선출을 하더라도 새 총장이 들어서면 또 다시 선출해야 하는 어려움이있다"고 나름대로의 고충을 털어 놓은 裵相賢(한문학)경주교수회장은 그 근거로 "부총장의 임명권자가 바뀌면 부총장도 바뀌어야 하는것 아니냐?"라고 말해 절차야 어찌 되었든 申총장 서리의 이번 보직개편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들에 대해 비주체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재단이 임명했지만 '申총장 서리를 인정치 않을 수 없고 서리이자 임명권자이기 때문에'이번 보직인사 개편에 따른 金전 부총장의 사퇴직후 부총장 권한대행에 김시배교수가 임명 된 것에도 근본적 부정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지난 88년 2학기 경주캠퍼스 학생들이 17일 간의 각 행정부에서 점거농성을 전개하며 부르짖었던 '경주 자주권 쟁취하자'라는 함성에 상반되는 것이다. 아직 학교 행정의 절대권을 가진 서울 보직인사에 의해 경주캠 주체들의 뜻과는 상관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 풍토아래서 경주 자주권의 보장 정도는 '분교'시절의 그것보다 나을게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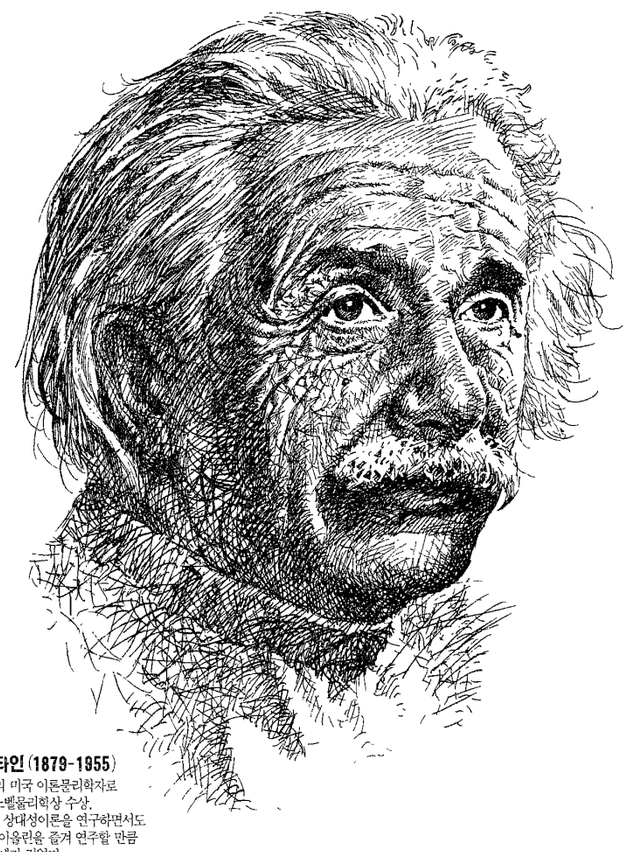
최고 권자는 총장이더라도 "최소한의 부총장의 인사권 정도는 가져야 경주 자율성은 획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金전부총장이 사퇴 조건을 밝히고 물러난 지 일주일남짓 지났다.

총학 학자투위는 설문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 참여의 정도가 얼마나 될지, 얼마만큼 기층의 인식을 각성시키고 논의를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은채.

〈정희윤 記者〉

스피커제일주의 — 롯데매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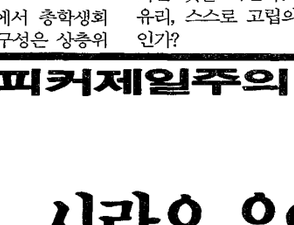
●졸업과 입학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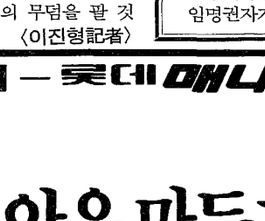
아인슈타인 (1879-1955)
독일태생의 미국 이론물리학자로
192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
그 유명한 상대성이론을 연구하면서도
틈틈히 바이올린을 즐겨 연주할 만큼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

사람은 음악을 만들고
음악은 사람을 완성시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4년의 대학생활은 학문과 인격을 동시에 연마해야 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틈틈히 음악을 가까이 하여 정서를 풍부하게 가꾸는 수양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인류의 큰 스승으로 추앙받는 공자나 상대성이론으로 이름을 떨친 아인슈타인같은 위인들의 생활속에는 항상 음악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인격을 완성하는데 음악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음악은 좋은 오디오로 들어야 합니다.
스피커 제일주의 — 롯데매니아.



롯데매니아 909R-
구성모델 : LA-415p, LA-415M, LT-415, LP-415, LS-525T, LS-X3, LC-415W



롯데뮤직칸 55CD
■ 권장소비자가격 ₩398,000 (단, 장식장 별매임)
구성모델 LM-510CD, LS-305D

롯데매니아

孔子 (B.C 551-479)
중국 춘추시대의 대철학자, 유교의 비조이며
세계4대성인중의 한 사람으로 추앙받음.
그의 가르침을 적은 〈論語〉에 의하면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이라 하여
음악이 인간을 완성한다고 가르쳤다.

작전권이양…빛좋은 개살구

군구조개편안의 미국개입 음모를 밝힌다

○… 지난 12일은 제2의 대전협정이라고 부를만한 날이었다. 이름하여 「군조직개편안의 국회 날치기 통과」였다. 넘어오기 위한 전제였고 군의 정치개입이 우려되는 그런 일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미국의 동북아시아전략과 밀접히 관련되어있고 앞으로 한·미·일군사동맹체의 건설이라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 …○

국방부는 지난해 10월4일 그동안 추진해온 군구조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시국회에 국군조직법개정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이 개편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군구조개편안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같이 문민정치가 확립되지않은 나라에서 국방참모총장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군인의 정치개입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조직의 여러형태

일반적으로 군운용의 양대지주는 군정권(인사·군수등)과 군령권(정보·작전지휘)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3군병립제로 하느냐 아니면 통합내지 합동체제로 하느냐에 따라 비통제형합참의장제·통제형합참의장제, 합동참모총장제,단일참모총장제로 나뉜다.

첫째로 비통제형합참의장제는 전통적인 3군제도를 기초로 국방장관이 각군본부를 통하여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고 합참은 군령계선에서 제외하여 장관에 대한 순수한 군령보좌만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으로써 실질적으로 미국의 작전통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제형 합참의장제는 군정권은 장관이 군령권은 합참의장이 장악하는 제도인데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국방부밑에 각각 육·해·공군부를 두어 민간인으로 장관을 임명, 민간통제를 확립하고 작전지휘면에서는 합참의장에게 통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로, 합동참모총장제는 국방장관예하에 합동참모총장을 두고 각군을 이에 예속시켜 참모총장이 직접 각군및 작전부대를 지휘하고 군정권은 각군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제도인데 대부분의 서유럽국가들이 이 제도에 가깝다. 이들 나라는 군의 정치개입이 문화적·체계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부가 추진하려는 제도가 바로 이 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장관의 예하에 단일참모총장인 총참모장을 두고 각군은 완전해체하여 단일참모총장이 군정과 군령권을 일원적으로 행사하는 제도를 들수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치의 군사통치가 교리상으로 확립된 사회주의국가나 대만과 같은 군사우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상의 네가지 군조직 유형에서 문민통제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은 마지막유형이고 그 다음이 세번째 유형이다.

◇ 12일 오후 2시20분 국군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려 하자 평민당 의원이 저지하고 있다. 〈자료사진=광주일보〉

란 미국군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추진중인 군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군령권을 가진 국방참모총장이 한미군사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므로 한국군의 입지가 강화될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주한미군부분철수와 결부된 한미연합사개편안의 현실화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미국의 대한반도전략

미국은 88년초 종래의 일면적인 방위구상에서 벗어나 폭넓은 불시의 사태에 선택적인 군사적 대응을 해야한다는 '선택적 억지전략'을 추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연합사를 이원화한 기초위에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결합한 동북아사령부 창설'이라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연합사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한국군의 군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앞의 연합사 2원화로 제1연합사를 한국군이 맡는다면 그 사령관은 육해공군의 3군을 통괄할 수 있는 군령권을 장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국방참모총장제는 필수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군조직개편안은 미국의 대한반도군사정책의 구도하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는 결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력 약화를 뜻하지 않는다.

작전지휘권의 일부가 우리나라로 넘어 올 수 있고 주한미군이 일부 철수할 수 있지만 미국은 지금보다 고도한 작전지휘체계—예컨대 태평양 군사연습(PACEX), 환태평양군사훈련(RIMDAC)등의 합동군사훈련체계—속에 한국을 편입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미국 주도권하의 한·미·일 군사동맹체를 건설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군조직개편안은 미국의 동북아시아전략중에 한·미·일 군사동맹체를 건설하려는 것과 3당합당에서 나타난 식민지 안정화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군권 집중화로 정치개입을 제도화

동북아 군사권 장악을 위한 미국의 구도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아직 서구와 같이 문민정치가 문화적·제도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군의 정치개입의 가능성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수많은 비판을 무릅쓰고 채택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의 비통제형합참의장제에서 국방참모총장제로 군조직을 변화시키려는 이유와 그 개편이 가져올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군조직개편의 의도

현재 한미연합사는 한미군사위원회로 부터 전략지침을 받는다. 즉, 한미군사위원회는 작전지침과 전략지시를 하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는 기구로서, 한반도 군사문제를 관장하는 최고군령기구이다. 이 군사위의 회의는 양국 합참의장, 한국측 추가대표, 태평양지구사령관, 연합군사령관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상설회의는 한국합참의장과 미합참의장을 대리하는 연합사령관이 대표로 참석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의 합참의장은 군령권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하므로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전략지침이

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침략저지'을 위한 '주도적'역할에서 '보조적'역할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감축에 관한 미상원의 넌—워너수정안에 잘 나타나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한미군의 감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이상훈국방장관이 밝힌 '수도 북방의 동원사단 2개 신설계획'이다.

즉, 기존의 대간첩작전위주의 전략에서 전면전에 대비한 입체기동형 전략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군의 전략변화와 주한미군의 부분철수는 미국의 동북아시아전략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는 한미연합사이원화방안과 연결되어 있다.

한미연합사의 이원화방안에 대해 미해군대학원의 올센교수는 88년7월29일 '동아일보'기고문을 통해 "한국군과 소규모미군파견부대로 구성되는 제1연합사는 한국군장성 지휘아래 대북한방위난을 전담하고 주로 미군으로 구성되는 제2연합사는 미군장성의 지휘아래 대소견제등 보다 거시적인 동북아 방위를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응책 모색

앞서 살펴본 군조직개편안은 현실—민자당이 의석의 3/2를 가진—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문민통치의 원리에 충실하다고 하는 '비통제형 합참의장'제를 채택해 왔지만 5·16이후로 군의 민간정치배현상은 계속되어 왔다.

이것은 분단체제와 남북대결체제가 종식되지 않고서는 군부의 정치개입과 미국의 식민정책을 약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에도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의 체결, 상호불가침 선언, 남북한 상호군축, 주한미군과 핵무기의 완전철수등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그랬을때에만 냉전시대의 나토형 한미일군사 동맹체 건설은 깨지고 미국의 대한반도 식민지 정책과 민자당이라는 친미반민주야합도 파탄될 수 있을 것이다.

김 영 걸
〈자유기고가〉

학생의사 무시한 불법행위

—전대협 탈퇴 4개대학 그 실상

◇ 사진은 6일 대구·경북지역 4개대의 전대협 탈퇴 기자회견

'대구·경북지역 총학생회 대표자협의회 결성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서를 지난 3월6일 발표하면서 전대협및 '대구·경북지역 총학생회 연합'(이하 대경총련) 탈퇴를 선언한 대구·경북지역 영남대·대구대·계명대 한국관광대(경주)등 4개대학 총학생회장 그들은 어떠한 이유로 탈퇴를 결정한 것인가?

전대협 탈퇴 선언은 지난해 4월 충북대 총학생회에서, 올해도 지난 1월 충청지역의 청주대 건대 충주캠퍼스등 5개대학 총학생회가 탈퇴와 함께 '충북지역 총학생회 연합' 결성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2학기 일부 일간지및 기타 언론은 이례적으로 전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 결과에 관심을 가지며 '운동권'이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운동권을 NL의 전대협과 PD의 학특연등 그외 분파로 국민들의 시각을 분열, 고정화시켰으며 비운동권의 총학생회장 선거 당선을 크게 보도하였다.

이에 보답하듯 또다시 전대협과 그 산하조직인 소속지구대협 또는, 총련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그 이유와 배경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탈퇴선언을 한 이들 총학 집행부가 가지는 탈퇴시의 공통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전체 학생대중의 뜻과 무관하게 발표된 점과 발표동시에 여타 학생회나 학생들로 부터 심한 반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20대 충북대 총학생회는 전체비상학생총회에서 탄핵을 받아 물러났으며 이번 4개대학의 경우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탈퇴를 선언한 이들 총학생회장들은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기존의 학생운동 노선을 과감히 수정'해서 '낡은 교조주의적 성향을 탈피함과 동시에 헤게모니 쟁탈의 대리전적 성격을 벗어던지고 자유 민주주의의 참다운 실현과 점진적 사회개혁의 추진자로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인

현장취재

식'하여, '독자적 학생운동 노선의가 하더라도 인정한다는 내규가 있으므로 총학생회와 대화가 안된다면 단대 학생회 중심으로라도 가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와 학생총회를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발표라는 비판속에 영남대 총학생회장 김진홍군은 "총학 선거시 전대협을 탈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의견수렴은 그때 된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 신생대학으로 학생회 체계가 확고하지 못한 관광대의 경우 이번 탈퇴 선언을 함께 한 총학생회장은 지난해말 총학선거가 올해로 이월됨에 따라 임시적으로 임기를 연장받았을 뿐이다.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반대와는 달리 대경총협 임시의장인 대구대 총학생회장 하상규군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 12일 대경총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 학생들에 대한 해명과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요구했다.

이들의 탈퇴이유인 '새로운 운동의 방향성 정립으로 정치, 사회적

학생총회 거치지 않은 독단적 처사

학내자치기구 강력한 이의 제기

정립과 함께 전대협과 대경총련 탈퇴, 특정 정파에 구애됨 없이 자체 비판 활동을 활성화 시킬 것, 학생회의 정치투쟁적 성격 축소와 학내 제반문제에 주력'등을 결의하며 '대구·경북지역 총학 대표자 협의회'(이하 대경총협)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실에 각 학교 학생자치기구들은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 행위라 규정하며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력한 이의를 제시했다.

대구대 총대위원회 부의장 김동영군은 "아직 전대협 가입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이기에 엄격히 '탈퇴'라 할 수 없다"며 "전대협 회칙에서 총학생회장의 참여가 안될 경우는 해당 대학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참가 된다는 것이다.

투쟁을 지양 학내문제에 주력, 전대협의 정치투쟁이 보여준 물리적 폭력투쟁을 거부한다'는 주장은 바로 학원이 사회 역사적으로 조건지워지는 것을 간과하는 사고이다.

실천은 이론의 밑바탕이며 이론은 실천의 길잡이라 할때 이들은 자신들이 소위 말하는 학습이 부족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학자투나 기타 학원내의 문제점을 인식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투쟁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전대협및 산하총련을 사상적으로만 무장된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들의 가장 큰 오류이며 자신들의 부족함을 폭로, 전국 청년학도와 함께 하는 전대협을 외면하고 이전의 고립된 비물리적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차옥경기자〉

알아봅시다

'금융 실명제'

경제민주화를 저해하는 요인중 가장 큰 요인은 소위 정경유착이라 불리우는 권력의 남용이 있고 불공평한 세제, 그리고 재벌기업이 특정 집안에 의해소유·지배되도록 하는 상호주식, 상호증자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부조리는 근본적으로 두가지때문에 가능한 것인데하나는 토지·부동산 정책의 잘못이고 또 하나는 금융자산을 자기이름이 아닌 정체불명의 인물로 소유한 가명금융자산 때문인 것이다.

금융자산이라 하면 쉽게는 흔 보는 예금통장부터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등이 있는데 이러한 금융자산을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사용해도법적 제재조치가 없었다. 이렇게 가명으로 소유하게 되면 그돈을 타인에게 증여를 했는지, 아들에 상속을 했는지, 그돈을 어디다 굴리는지 정부로서는 도저히 그돈의 소유주를 추적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즉 세금을 매길 대상자를 모르게되니까 그 금융자산 자체에 대한 이자약간액을 원천징수만 할 뿐 불로소득에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채권이란 것이 조세시효가 5년밖에 안되니까 5년이후에는 세금없는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 경제를 헤집고 다니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보통월급쟁이가 55%를 내는 반면 이런 몇백억을 가명으로 굴리는 사람들이내는 과세는 제아무리 길고 날아도 52%밖에 징수할 수없고 거기다가 5년후에는 증여세, 상속세를 포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하고자 한다면 핵심이 금융자산의 실명화이다.

이런식으로는 정말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막을 수 없으니까 토지공개념과 같이 등장하게 된 것이 금융실명제이다.

인천무대로 비극의 민족분단사를 전개

—이원규 장편소설 '黃海'

書評

베트남 전쟁을 다룬 〈훈장과 글레〉로 문단에 등장한 작가 이원규동문의 제2의 장편 〈황해〉를 내놓았다. 월남전 참전 용사로서 체험을 그린 작가의 사나이다운 투혼과 월남현지민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동시에 깃들여 있다는 〈훈장과 글레〉가 작가의 참전경험을 살려 전쟁의 의미와 삶의 본질을 다룬 작품이라면 〈황해〉는 해방전후의 좌우익의 대립과 어민들의 생활사를 역사적 수난과 영광의 도시, 인천을 중심으로 그 주변 도서지방의 과거를 꿰뚫어 보려는 역사적 상상력이 박진감 넘치게 전개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정서가 애잔하게 물결치고 있다.

작가의 말에 의하면 인천은 서울과 인접한 도시이면서 수많은 섬을 거느린 지방도시이기 때문에 그 성격을 파악하기가 매우 힘든 도회지라고 한다. 토박이들이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외지에서 흘러온 사람들이라서 제고장에 대한 애착심도 대단하지 않다.

인천에서 태어나 자라고 배우고 생업을 꾸려가는 작가 이원규는 바로 이런점을 눈여겨 보아 비극의 민족분단사를 인천을 무대로 전개하고 있다.

해방전후 좌우익 대립 '증언'
통일 염원하는 모두에게 교훈

작품을 쓰기위해 지난 86년부터 2년동안에 걸친 치밀한 자료조사로 사실에 기초한 작가의 사회학적 상상력은 독자들에게 작품에 대한 신뢰감을 부여한다.

작가는 까마득한 먼 기억 속에서 미군의 상륙작전의 포성에 벌벌 떨던 자신과 가족들의 모습을 더듬을 수 있다. 그리고 소년기에는 미군의 구호물자와 양공주, 그리고 미군의 군사문화가 지배하던 인천과 부평의 옛거리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 기억의 바탕위에 근년에는 〈포구의 황혼〉 〈달무리〉 〈침묵의 섬〉 〈바람과 섬〉 등 인천과 황해를 배경으로 한 분단제재 단편을 썼고, 마침내는 해방직후 분단이 고착화되는 그 절망의 시기에 민중의 저항이 번번히 꺾여버린 비운의 장소로서 황해와 인천을 현대사의 한 공간으로서 일반에게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황해의 칙칙한 파도에 묻혀있는 한스러운 역사의 일부를 드러낸 〈황해〉를 집필한 것은 역사적 필인이다. 〈황해〉는 선원들의 애환과 저항, 전평(全評) 조직을 중심으로 한 인천기계제작소, 동양방직 등 공장의 쟁의사건, 전국 어느 곳보다도 많은 좌익 노동자들이 역시 전국 어느 곳보다도 세력이 강했던 서북청년회 등 우익단체와 충돌하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좌익과 급진세력이 뿌리가 뽑혀지고 마는 과정을 클라이막스인 6·25의 인천상륙작전과 연결하여 그려지고 있다.

작가가 이 작품을 쓰면서 가장 애를 먹었던 것은 자료조사 과정으로 그때를 증언할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거니와 그들이 아직도 사실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 한다는 점이었다고 한다. 그들의 입을 봉한 냉전논리가 아직도 엄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서울에서 자료를 찾아 인천에서 다시 확인하는 작업도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나 〈황해〉가 이러한 지역성의 부각에만 매달렸다면 향토소설로 분류될 뿐 더이상 서 주저한 적이없는 인간성의 소유자이다.

이 작품에는 그 시대와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인물이 대거 등장한다. 이런 인물들이 대립과 갈등을 빚어내면서 벌이는 상황은 오늘의 한 전경이자 축도인것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가까운 과거에서 찾아 현실의 국면에 재조명하려는 것이 이 작품의 의도이다.

이 소설에 대한 '황해라는 이떻게 보면 그저 우리의 황금어장이라고만 인식되던 바다와 섬이 한국사의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다'는 김승옥(평론가·고려대 교수)의 말이나 '신진작가가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무대를 잡아 열정과 패기로 과감하게 분단문제에 도전한 작품으로 분단소설의 상투성을 거뜬히 벗어나 객관성을 확보한데다가 작가정신이 치열한, 우리 소설에 있어서의 잃어버린 공간과 시간을 찾아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는 조정래(소설가)의 긍정적 평가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소설의 힘은 이론이 미칠 수 없는 인간성 전체와 사회적 총체성을 예술적 가능성으로 복원하는 데 있다며 이원규의 〈황해〉는 그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소산이다'고 말한 전영태(평론가, 중앙대교수)의 말처럼 작자 이원규는 분단과 6·25를 경험하지 못한 추체험세대이지만 이 땅의 작가로서 분단의 벽을 넘어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자각으로 끊임없이 고민하는 우리시대의 작가임에 틀림없다.

〈문화부〉

탈수습기 가식을 깨뜨리고 참세상을 향하여

이제 봄이다.

캠퍼스엔 따사로운 햇살에 잔디가 푸르러가고 뾰얀 여학생의 얼굴에서 봄을 찾는다. 마음맞는 녀석과 어울려 신명나게 쇠를 치고 싶고 여자친구와 데이트가고도 싶다.

"야, 이걸 기사라고 썼냐"

"임마, 기사를 대가리로 쓰냐! 다리로 쓰는 지 불라"

남궁 은 記者

"내가 나를 원하고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민중이 나를 원하고 있다"

터져나오는 선배들 고함소리에 달콤한 수습의 환상은 온데간데 없이 날아가 버린다. 후다닥 취재 준비해서 신문사 빠져 나오며 '어휴, 이놈의 수습 언제 떼나. 나도 소리나 질렀으면 좋겠다'하며 애꿎은 전자오락기만 두들겨 댔다.

기자랍시고 처음 출입처의 문을 열때 조마조마 하던 수습, 안국동 취재갔다가 불온 포스터를 소지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꼰수로 새장에서 종로경찰서로 2차에 걸쳐 몸을 허락(?)해야 했던 수습. 원고 청탁이 빵꾸나도 수습이라며 안주했던 그 행복했던, 억울했던 수습기간이 끝났다.

항상 말머리에 붙던 '수습'이 아득하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발한가운데 서서 꽃향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듯 무지와 무관심의 비호아래 애써 눈감으며 살았던 날들이었다.

'어'하는 사이에 시작된 신문사 생활.

그리하여 알게 된 왜곡된 역사, 모순된 현실, 노동자·농민들의 절규에 나는 분노했고, 오로지 '사랑'만이 힘의 원천인 줄로만 알았던 내게 우리들의 '분노'도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혀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했다.

어금니에 힘이 들어간다. 꽉 쥔 두 주먹에 더더욱 힘이 들어간다. 내가 나를 원하고 있고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민중이 나를 원하고 있다.

지금 탈수습기를 쓰며 탈수습의 홀가분보다는 앞으로의 책임감이 엄습해 온다. 그러나 일어서야 한다. 들어보라, 도처에서 신음하는 민중의 소리를. 이 소리를 담아야 한다. 이들의 피를 지면에 옮겨 나타내야 한다. 심장이 뜨겁고 벅차다. 가식을 깨뜨리고 참세상으로 뛰쳐나가야 한다.

이제 또다시 때묻은 취재수첩을 들고 신문사를 나서는 나를 발견한다.

〈문과대 영문과〉

김영란 記者

"이젠 내 몰골 위에 전사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지 분간할 수 없었던 일과, 번쩍거리는 화이버를 쓰고 쫓아오는 백골단을 꿈속에서도 도망다니며 내일은 반드시 그만두자고 다짐했던 날들.

그러나 결국은 여기까지 오고야 말았다.

군기가 빠졌다며 달밤에 만해광장을 거품물며 달리던 일, 무서운 전설이 내려오는 암실에서 그녀(?)와 싸우며 홀로 사진작업을 하던 일등은 포을러스의 나비처럼, 케스트너의 쥐처럼 자신을 무차별하게 파괴하는 아픔이었다.

이젠 허물어진 내 흉칙한 예전의 몰골 위에 뜨거운 피를 갈아 넣고 전사로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기자라는 명분을 사칭할 기회주의자일 뿐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으면서.

우리들 모두, 두고 온 산하의 그들 모두 나의 형제들이란 것과 저 만주벌판의 결코 전설이 아닌 '역사'를 현재의 핏빛 역사와 연결시키는 작업이 분노를 실천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라 믿고 이제 꼿꼿하게 일어서려 한다.

자주·민주·통일의 그날까지 비록 통일의 꽃은 될 수 없을지언정 경쾌한 셔터음에 전율하며 새까만 암실에서 그것들을 형상화시키는 작업에 내 땀을 부어야겠다.

〈사범대 수학교육과〉

벌써 한해가 지나가 버렸구나!

지난해 이맘때는 모든것이 신기하고 부럽기만하던 참신한 신입생 옥경이가 이제는 2학년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신문사라는 이제는 낯익은 곳에서 지나간 한해를 마무리하며 기다리던 탈수습을 한다.

탈수습기라는 것을 쓰기 위해 지나간 신문들을 뒤져보았다. 내가 지금 어렵게 이글을 쓰고 있는것은 아마도 1백80일의 수습기간중 50일정도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두렵다, 정기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나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기에 더욱 두렵다.

지금 생각하면 아쉽고 그리운 기간이지만, 신문사 생활처음 1주일은 울고만 싶었다. 시끄럽게 울리는 전화벨소리, 선배들의 발자국소리, 내 이름을 부르는 나즈막하고 부드러운 취재부장님의 목소리가 무서웠다. 매주 금요일이 싫었고 한적한 토요일 오후를 맞이하고 싶었다. 하루종일 커피한잔 마시고 교내를 뛰어다니고, 속상한다고 기자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취재수첩을, 신문들을 집어던지기도 해보고. 하지만, 씁쓸히 웃으며 집어들어 다시 정돈을 하고. 내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에 웃을수 밖에. 이곳에서 동료사랑 나라사랑이라는 소중한 말도 배웠다.

아무도 내가 서러워 울때 도와주지 않았다. 내자신에 대한 비판의 시간들만 날이 갈수록 길어졌다. 아무도 나를 지켜봐 주는 사람은 없었다.

주위사람들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들 하지만, 나 자신 얻는것이 없는 하루가 싫었고 나태해진 내 모습이 보기 싫었다.

신문사 벽에 붙어있는 '선전일꾼의 자세와 역할'이라는 글이 보인다. 선전일꾼, 조국해방 투쟁의 언론전사라.

경주에서 두번째 맞는 봄을 시작하련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수동적 자세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내 자신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동대신문과 열린 가슴으로 만날 해방의 그날을 위해 뛰어보고자 한다. 그날이 그날이 오면, 지금까지의 다른 모습으로 동대신문과 만나고 싶다.

차옥경 記者

"동대신문과 열린 가슴으로 만날 해방의 그날을 위해 뛰어 보고자 한다"

〈인문대 고미사학과〉

달하나 千江에

대학과 계란

趙 儀 衍
〈문과대교수·화용의미론〉

계란이 대학사회에서 학생들에 의해 저항수단의 무기로 사용된 것은 2월23일 동대졸업식장이 처음인것 같다. 일간지에 크게 다루어진 탓인지, 나를 아는 타학교 교수들은 이에 관해 이야기하며 교수 위상이 낮아짐에 우려를 표시함과 동시에 학생들 행동이 거칠어짐에 탄식조차 했었다.

이 글 이름을 읽은 분 가운데,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를 신문까지 끌고왔나하는 분도 계실 것이나 이 사건이 교수와 학생을 둘러싼 대학문화와 관계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이렇게 거론하게 되었다.

계란사건이 발생케된 원인도 거론되어야 겠지만, 먼저 우리는 학생들이 총장교수를 대상으로 계란을 던진 것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계란은 분명 학생들의 무기였다. 보는 이에따라 계란은 화염병으로 혹은 돌로 혹은 이 두가지 이상의 저항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문제는 믿음과 상호존중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교육의 터에서 학생이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에게 계란을 던진 행위는 반란이 아니면 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군사부일체라는 유교의 도덕률에 따르자면 이는 인륜을 파기한 용서받을수 없는 반란행위이다. 지배자인 스승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록 현 우리사회는 조선시대와는 달리 모든 도덕률이 완벽히 유교에 의해 지배받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에 의해 그 이념이 재생산 되어오며 여전히 지배적인 생활윤리로 위치하고 있음을 볼때, 교수에게 계란을 던진 학생들의 행위는 기본 윤리질서를 부정한 것이므로 보는 이에따라 반란 혹은 혁명과정 속의 한 행위로 평가되어 질 수 있다.

나는 우선 그 사건을 두가지 어느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혁명이 아니거나 혁명과정 속의 한 행위가 아닌 이유는 학생들이 교수·학생과의 기존에 통용되어 온 도덕적관계를 부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갈망하는 동기하에 계란을 총장교수에게 던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반란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록 학생들이 총장교수에게 그런행위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 사부일체라는 도덕관습에 길들여 있는 많은 교수님들에게는 충격이지만, 첫째 학생들이 계란을 던진 것은 그 도덕관습을 깨려는 의도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오죽했으면…" "왜 그랬대?"하고 말하는 그 도덕관습의 혜택자인 교수들의 반응은 학생들의 행위가 그 도덕률에 대한 반란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다.

나는 계란사건을 전해들으며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학생들은 그들이 갈망하는 사회정의를 기존의 도덕률보다 더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양립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도덕관습의 수혜자인 교수들이 그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키려면 사회정의에 반하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정의에 반하는 그리고 반역사적인 일을 하거나 동조하면서 어떻게 도덕관습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도덕은 참과 정의 위에서만 제빛을 발휘한다. 참과 정의에 반하는 도덕률은 도전받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부일체의 도덕관습이 지니는 좋은 점을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대학에서의 일차적인 집단은 대학의 중심이며 그 도덕관습의 수혜자인 교수이다.

교수의 위상은 교수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높은 위치에 관련된 교수님들이 하는 결정과 행동의 여파는 대단한 것이다. 사회정의에 어긋나거나 반역사적인 행동을 하면 학생들은 교수들을 존경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일반 교수들은 점차 설자리를 잃어 갈 것이다.

동악광장이 새롭게 바뀝니다!

동악광장의 광고문의는 본사 〈2194〉 문화부로

동악広場

경주캠퍼스 내성 금정여고 동문회 결성및 신입생 환영회

때 : 3월15일 오후5시

곳 : 학생회관 휴게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이욱재(불교)	이태진(영문)
유병호(법)	박용진(경제)
정현정(가교)	김정도(무역)
김사영(한의예)	박영준(한의예)
정화경(불교아동)	

6기 이진호(법2)드림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4일이 제친구 주원이 생일이걸랑요。 많이 많이 축하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주원아。 생일 축하해!

—영란이가

통계 상담 안내

문과대 통계학과 통계상담실에서는 여러종류의 통계 Package를 확보하고 아래와 같이 통계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통계상담 내역
   - ○ 통계조사 및 계획 ○ 통계전산처리 및 분석
   - ○ 기타 제반 통계 상담
2. 통계 Package 종류
   - ○ SAS ○ SPSS ○ Minitab ○ RATS
   - ○ STAT graphics ○ Havard graphics 등
3. 통계상담원 : 해당전공 교수와 대학원생들로 구성

통 계 학 과

외국어특강 실시 안내

외국어교육원에서는 1990학년도 1학기 외국어 특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학생들이 많은 수강 신청을 바랍니다。

과 목	강 사	시 간	강의실
ACADEMY TOEFL	서 장 국 (전 외대 강사)	07:30—08:50	동국관L301
VOCABU-LARY & 영어순해	김 영 식 (전 성대 강사)	07:30—08:50	동국관 L501
이 재 옥 TOEFL	유 재 길 (전 건대 강사)	07:30—08:50	동국관 L401

1. 강의기간 : '90. 3. 26~'90. 5. 25(월~금)
2. 인원 : 300명
3. 수강료 : 5,000원
4. 접수기간 : 90년 3월12일부터
5. 접수처 : 외국어교육원 사무실, 구내 서점

외 국 어 교 육 원

장·단기적 마스터플랜만이 타결책

학교측 물가-강의실 확충등 13.96%인상 제시

학생측 등록금 동결 - 기성회비 10%인하 해야

등록금협상이 타결을 보지 못한체 계속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3.96%의 등록금인상을 제시한 학교당국과 이에 예·결산 공개, 재단전입금 확보및 장기적인 정책적 마스터플랜을 통한 고질적 학생등록금 의존 재정책을 전환키 위한 학생회의 등록금동결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8차의 등록금협상과정에서 학교측은 89년도 본예산에 13.96%를 일방적으로 인상 제시했다.

그러나 학생회는 일방적 산출 근거 해명과 90년도 납입금 인상예정산출표 공개를 요구, 이에 관한 철야작업 끝에 학교측의 산출결과는 11.28%의 실질인상율로 나타났다. 또 지난 10일 있은 협상에서 학생회측은 원칙적으로 등록금용도와 재단사업은 구분돼야하며 이에 따라 90년도 가예산에서 동국별관설계비, 동국관증축공사비, 경주의대병원 기구매입비등의 비용 삭제를 요구, 오는 15일 학교당국과 재논의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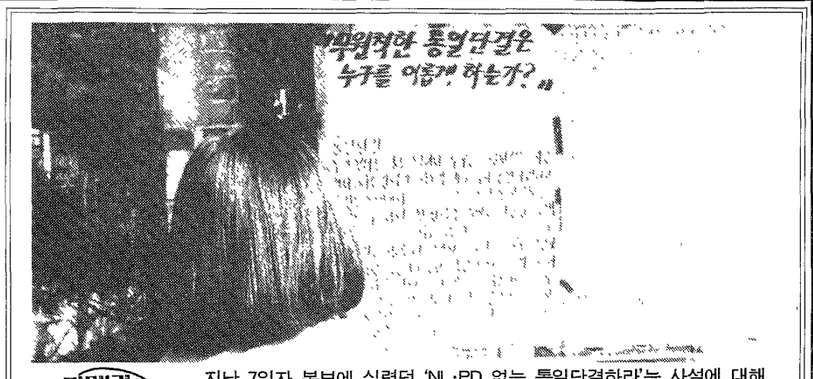
학교당국의 인상근거를 보면 90년도 예산중 가수입 2백24억, 가지출 3백6억으로 잡고 등록금이 13.96%인상돼도 약 82억의 차액이 생긴다면서 물가상승율 5.5%와 인건비 13.5%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학생회측은 89년도 결산안에 근거한 예산편성, 예산편성에 학생대표참석, 예·결산공개를 등록금협상원칙으로 세우고 학생회측 가예산을 짜놓았는데 이에 따르면 '등록금전면동결과 가성회비 10%인하를 산출결정'했다. 학생회측의 이러한 산출근거로는 재단담당사업의 분리(병원건립을 포함한 공사비등)를 들고 있으며 재단에서 지급해야 되는 교직원 연금·퇴직금등이 등록금지출에서 제외되고 지난해 재단에서 약속한 재단전입금 5억원을 수입으로 책정,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측 가예산에서 제외된 지난해 부정입학특별적립금 14억이 포함돼 있는데 학생회는 부정입학의혹해결과 학교측에서 이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학교측 가예산을 보면 재단전입금 5억책정, 컨벤션센타 건립계획, 재단활성화 추진위원회등 궁극적인 재단의 지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재단전입금확보를 약속받을 수 있는 재단대표가 등록금협상에 빠진 상태에서 재단에서 들여올 수 있는 지원금이란 거의 힘든 상태이다.

이번 등록금 협상 난항과정에서 드러나듯이 등록금 책정은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울러 고질적인 학생등록금 의존에서 탈피, 장기적인 정책과 마스터플랜에 기초한 등록금책정이 선행돼야 하며 예·결산이 학생들에게 공개되어 철저한 부정입학진상규명과 안기부등에 지출되는 자금운용의혹도 해소해야 한다. 또 문교부의 對사립대 재단지원금 확충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종단과 재단도 등록금 협상을 학생, 학교당국에만 떠맡기는게 아닌 학자투과정에서 약속한 재단전입금확보, 재원의 수익체계로의 전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제시를 통한 물적토대혁신만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우선책일 것이다.

〈남철우 記者〉



지난 7일자 본보에 실렸던 'NL·PD 없는 통일단결하라'는 사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 '학생투쟁위원회'의 대자보를 눈여겨 보는 한 학생의 모습. '원칙'이나 '과학적 사상'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하여 '통일단결'만 된다면야…. 〈글·사진=유권준 記者〉

金世圭교수 별세

인문과학대 金世圭(국사학) 교수가 지난 7일 본교부속 포항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41세.

경북 영풍에서 출생한 金교수는 72년 본교 사학과와 75년 본교 대학원 사학과를 졸업한 뒤 84년 인문대 국사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동아리 신규 등록 오는 17일까지 접수

제6대 동아리 연합회에서는 신규동아리 등록및 재등록을 오는 17일까지 받는다.

등록원서는 오늘(14일)부터 교부하고 구비서류는 등록원서 1부, 동아리회칙 1부이다.

대총 감사 계속 지연

감사주체 부재등 이유로

총대의원회(의장=안성준·국윤4)주관, 총학생회 89학년도 사업·회계감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6일 학북위를 시작으로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대총측은 '감사주체부재·준비의 미비'등의 이유로 동연·여총·단과대 감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일로 예정되었던 총학감사도 영수증미정리, 사업평가의 미비등으로 연기되고 있다. 한편 대총에서는 총학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도로 감사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지난 12일 감사연기 신청서를 접수, 총학투표일인 29일 이전까지 감사를 마치게 된다.

민주동문회 회장단 유임

직능별 사업중심체계로 전환 결의

본교 민주동문회 제3차 정기총회가 지난달 24일 다향관 학생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사업보고와 결산보고및 예산심의에 이어 2년 임기의 새 임원선출이 있었는데 회장에 신경림(영문 54卒), 부회장에 조정래(국문62卒), 여익구(사학63卒)동문을 각각 유임시켰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그간의 행사위주의 사업에서 각자의 직업, 직능별 소모임을 조직화하는 사업중심으로 대중적인 민주동문회가 되자고 다짐했다.

중앙도서관 40여만권 장서 보유

지난해 구입도서 3만여권으로 집계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관장=金東俊·국어교육) 보유장서 현황과 도서증가량이 지난달 28일 최종집계, 발표됐다.

지난해 도서수는 88년에 비해 구입도서와 기증도서를 포함, 2만8천6백여권이 늘어났으며 총 등록도서는 동서, 학위논문등을 합해 37만2천5백여권으로 집계됐다.

이들 등록장서를 분류별로 보면 東書 16만5천4백90권, 西書 4만6천7백32권, 학위논문 7만5천4백92편, 고서 1만9천4백36권, 비도서 5백17권, 기타 6만4천8백60권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기간행물은 국내 2백36종, 국외 3백65종으로 총 5백97종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입학 邢基柱교수 1학기 강의 맡아

사범대 지리교육학과 정기총회가 지난 8일 지교과(제도실)에서 열려 邢교수의 1학기 강의 재개를 결정했다.

"2백억 못주겠다"

원로회의에서 徐 총무원장 표명

종립대학인 본교에 대해 종단 분규 타결로 인한 싯가 2백억원 상당의 봉원사처분액을 서의현 총무원장이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 파문이 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서의현스님은 지난달 26일 조계종 원로회의(의장=月山)간담회석상에서 "조계·태고종간 분규사찰 타결로 생긴 불교재산을 동국대에 지출하지 않겠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함으로써 종립대학 중흥모색을 하겠다던 종단과 재단측의 의지가 공약(空約)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총장선거에서 후보로 나섰던 李智冠 前총장은 후보자 등록마감 하루 전날인 지난해 11월30일 석림회·석림동문회 주최 '총장추대식'석상에서 "총무원장과 중회의장이 내가 총장이 되면 종단분규 타결로 인한 봉원사 처분금액 약2백억원 상당을 총장선출후 6개월 이내에 학교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서의현 총무원장의 책임있는 발언을 통해볼때 지난해 부정입학사건이후 계속되고 있는 본교의 재정난 문제는 점차 혼미를 더할것으로 예상된다.

고 침 본지 1040호(3월7일자)의 1면 '경주캠퍼스 부총장사퇴'및 7면 '서울·경주 보직인사 개편'제하 기사중 지역개발대학원장을 '金시배교수'로, 또 의과대학장을 '박수성교수'로 바로잡습니다.

성실하고 희생적인 총학 건설할 것입니다

경주 제7대 총학생회장 백대진군과 함께

인터뷰

오는 22일 출범하는 경주캠퍼스 제7대 총학생회 회장 백대진(영문4)군을 만나 앞으로의 운영방안과 사업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총학의 운영방안은

"먼저 현정세와 학교상황이 어께를 더욱 무겁게 합니다. 저희 7대총학은 철저히 민주적 운영방식으로 학우대중과 함께하는 '대중우선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학우와의 괴리감극복과 집행부내의 인화·단결이 시급하겠죠"

—반민주 대야합 이후 노동운동등 탄압이 거세지고 있는데 현정세를 어떻게 분석하며 대처방안은.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파쇼대야합으로 규정,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 이를 분쇄할 것이며 아울러 정부는 허울좋은 先성장 後분배 경제정책을 내세워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는 만큼 이것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폭로하고 더욱 굳건한 노·학의 동맹으로 현정권타도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본교가 지난해부터 민주총장선거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있는데 발전적인 대안은 있는지.

"현재 학원내에는 민주적인 총장후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인물중 민주적이고 지도자적 품성을 갖춘인물을 모색중입니다. 아울러 경주부총장선거 역시 매우 중요한데 이번 경주의 인사개편은 인정할 수 없으며 1재단 2총장제의 쟁취로 실질적인 자치권의 확보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대중우선사업 총력 기울일 터

1재단 2총장제 쟁취로 '자치권' 확보

—상반기중 중점사업을 든다면.

"물적구조의 혁신사업인 등록금동결및 신입생환불투쟁으로 재단전입금의 확대를 꾀하고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총·부총장의 영입을 우선 수행하겠습니다"

—지난 6일 대구지역의 일부 대학 총학생회가 전대협및 대경총련탈퇴를 선언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는지.

"현재 총학의 능력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보다 성실한 모습과 희생적인 투쟁정신으로 학우들에게 인정받는 총학이 될것입니다"

〈김영진記者〉

'시대의 비극은 '삐까번쩍'

○…시대의 비극이 만든 또하나의 작품(?)이 터져 보는 이마다 착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게 한다는데.

지난 10일 아버지는 경비원, 어머니는 파출부인 영세집안에서 어린 남매가 연기에 질식사 한 것으로 더욱 경악케하는 것은 사고날까봐 밖에서 자물쇠까지 채웠었다나.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전세를 벗어날 수 없고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것이 무서워 자물쇠를 채우는 세상 한쪽에서는 역사적 전환이라고 친미반동야합을 떠드는 세상이다 보니 '세상은 삐까번쩍 거꾸로 돈다네…'가 절로 생각나게 해 씁쓸하기만.

감언이설에 휘청(?)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오듯 동악에서도 선거철이 돌아오자 이 후보 저후보 쫓아다니는 박쥐가 나타나는 중이라고.

이는 자신의 소신없이 주위에서의 감언이설(?)에 솔깃해 풍랑맞은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학생들을 보고 동악의 참새들이 내뱉는 말이라는데….

기성사회와는 달리 민족의 양심인 대학의 선거만은 감언이설이나 쇼맨쉽에는 아랑곳없이 순수한 열정에서 지성인적 소신으로 주인을 뽑아야 할 것이라고 관심있는 모 학우 일침.

보직은 파리목숨(?)

○…'믿어주세요', '그런건 좀 봐주세요'… 대통령 선거때나 나왔던 용어들이 등록금협상에서도 나왔는데.

지난 10일 있은 등록금협상에서 모교수는 이같은 발언을 계속하며 "잘 모르겠는데요", "내 소관이 아니오", "전적소임이라 잘 모르겠다"는 말만을 되풀이.

보직자리가 파리목숨(?) 인지라 등록금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기획조정 실장이 새로 바뀌고,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전철을 답습하기만.

이에 한 학우 왈 "10년동안 이대로 등록금 동결하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좌우명을 명심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을런지요…"라고 부언.

미련만 남은 교수회

○…"이미 와버린 총장인데 미워도 미워말아요~/이미 떼늦은 선거인데 미련은 두지~말아요~"

교수 직선 총장선출배 전국 노래자랑(?)에서 본교 교수회가 모가수의 '무시로'를 개사한 '총장으로'를 합창해 명예로운 대상을 차지해 타 교수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샀다고.

재단 총장 선임이후 명분상 성명서 한번 발표하고는 수업 때문에, 학사일정 때문에 두손 번쩍들고 "양은 냄비보다 더 빨리 식는 교수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모 학우 "그토록 학교의 주인은 교수라며 기득권만을 주장해온 교수회가 이제는 佛法깨달아 '空手來 空手去'하는 선두주자가 된 것 같아 씁쓸하다"며 한숨.

회전무대

기득권만 주장해온 교수회 마침내 '空手來 空手去'인가

스포츠조선 창간

3월21일
즐거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신선한 생활이 펼쳐집니다!

누구나 손에 들면 끝까지 읽고
들었다 하면 놓을줄 모르는 신문입니다.

있으면 보고, 없으면 그만인 신문이 아닙니다.
과대포장으로 내용이 텅빈 신문은 더욱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신문,
어느 한줄 버릴데 없이 알찬 신문입니다.
3월 21일, 재미있고 유익한 스포츠조선 창간!
아침에 읽으면 하루가 즐겁고,
살아있는 정보는 신선한 생활의 활력이 됩니다.
스포츠, 레저, 문화, 연예계 등 모든 화제의 인물들은
당신앞에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한번 손에 들면 놓을줄 모르는 신문, 스포츠조선.
3월 21일
새로운 차원의 종합 스포츠신문과 만나십시오.

재미있고 유익한 종합스포츠신문 - 스포츠조선

스포츠조선

퇴임기자의 변 펜하나, 진실위해 몸부림치던 여정의 끝에서…

'아쉬움' 저편에서

정 우 석 〈편집장〉

"반성문이 되어버린 퇴임기앞에서 선배님·후배들에게 감사와 건승의 말을 전한다"

"형, 월요일까지 퇴임기 써 갖고 오세요. 빵구내면 않돼요"농섞인 후배기자의 퇴임기 독촉이 왠지 섭섭하지만, 떠나는 입장에서 본다면 본분에 충실하고 있는 모습이 씩씩해 보인다.

나에게 마지막으로 할애된 지면.

이 한편의 원고를 넘기고 나면 이제 기자라는 호칭도 같이 내놓아야 한다. 돌이켜보면 길지 않은 지난 3년간의 대학생활이 곧 신문사에서 기자로서 보낸 기간이기에 신문사가 내생활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장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전부를 정리해야 하는 말을 써야한다.

수많은 인연중 유독 신문사와의 인연이 질기고 끈끈한 것은 신문사를 통해 이루어졌던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내적으로 겪어야 했던 의식의 지각변동 때문이리라.

기자라는 직분 그러나, '기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직도 궁한 실정이다.

'여론이라는 익명의 권위를 창조하는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 기자라 했을때 고의 아닌 미숙의 부끄러움을 느낀다. 기자라는 특권의식의 오만함이,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연상시키던 87년 6월의 퇴계로에서 조차 중립이라는 도피처를 마련하지 않았던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중간이 중립은 아니라는 뒤늦은 자각이다.

옛 성현의 말씀에도 선악을 구분 않고 둘다 좋다하여 남을 기쁘게 함이 곧 '음험함(險)'이라 했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말함이 '떠벌임(諛)'이라 했다. 많은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고 논평해야 하는 기자에게는 귀감이 될 만한 말이다. 그러나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남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줏대없음(佞)'이나 남의 속을 헤아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아첨(諂)'이라 여겨진다.

어쩐지 내가 잘못했던 것만 써놓은 것 같아 쑥스럽다.

결국은 반성문이 돼 버린 퇴임기만 남겨 두고 떠나면서 언론 40년의 성상을 쌓아온 선배님들과 정론의 의식과 직필의 각오로 고군분투 할 후배들에게 감사와 건승의 말을 전한다.

끝까지 이 지면을 같이 나누지 못한 서울·경주의 동기들 때문인지 글을 맺는 아쉬움이 더 크다.

〈사회대 정외과〉

신념의 나무에 물을

김 일 〈취재부장〉

"양심과 자유의 언어는 진실하며 각성의 채찍질로 다져진 신념은 무너지지 않는다"

많은 것을 성취하려 했던 기억의 썰물 뒤로 남은 처절한 회한이 가슴을 울립니다. 얻으려 한 만큼 잃어버렸고 채우려 움켜쥔 두 손 사이로 새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긴 터널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지나쳐 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새 오늘의 태양은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년간 나를 지탱해온 '記者'를 털어내는 시간이군요.

뒤돌아 볼 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지금.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직도 호흡조절을 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늘어 놓습니다. 아무도 인정치 않겠지만….

늘 표현부족에 허덕였습니다. 생각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로 자위한 것이 능력의 한계임을 깨닫기엔 많은 시간이 흐를 정도로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동대신문사 기자로서의 본분과 사명감을 망각하지 않으려 수없이 입술을 깨물었으며 신념의 나무를 가꾸는데 있어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써내려간 글이 1단짜리 기사라 할지라도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매체란 햇빛을 굴절시켜 무지개를 밝게 수놓는 프리즘처럼 아름다움만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기에 '여과의 아픔'을 느끼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완전주의자를 위해 기다려 주지 않는 신문의 마감시간에 굴복하고 마는 자신의 빈곤, 그 빈곤을 내보이지 않으려 허위의 가면으로 가리려 했던 일도 함께 하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지면을 알차게 꾸미려 했던 노력을 가슴 깊이 간직하렵니다. 값진 기억을 한아름 안고 떠납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로 부터 언젠가 한번쯤 철학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끝내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주지 못한 친구도.

우리가 헤쳐나가는 길에 노력만큼의 결과가 빛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양심과 자유의 언어는 진실합니다. 각성의 채찍질로 다져진 신념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봄기운이 새순을 돋아내듯 우리의 희망은 알찬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문과대 사학과〉

'진짜사랑'을 위해

이 종 석 〈학술부장〉

"목청껏 부른 나의 노래가 사랑과 정의를 수호하는 무기이길 바랬네"

먼 길 떠나려는 친구여, 그대는 사막을 건너는 낙타를 본 적 있는가? 나는 낙타가 되고 싶었네. 가슴이 빠개지도록 그리운—사막 저편에 있는—그것을 찾아 제 몸을 태워 사막을 건너는, 가다가 마지막 숨결마저 꺼져 버리면 그때에야 무릎을 꿇는 그것 말일세.

나는 사랑하고 싶었네. 사랑이 관념의 유희가 아니라는 것을, 시 몇줄은 낭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순간부터… 사랑은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하고,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할 줄 알며, 지켜야 할 것을 마침내 지켜내야 하는 힘겨운 싸움임을 깨닫았을 때 나는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었네. 올바르고, 그래서 생산적인 진짜 사랑을 하고 싶었네.

나는 노래하고 싶었네. 팔다리 억세고 아랫도리 뜨거운 젊은 놈에게 침묵으로만 산다는 것은 참말로 환장할 노릇이 아닌가? 나는 건강하고 흥겨운 노래를, 온갖 거짓과 죄악을 쫓아 버리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는 노래를 목청껏 부르고 싶었네. 그래서 나의 노래는 끝내 사랑과 정의가 이기게 하는 무기이길 바랬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 사랑은, 내 노래는 아직도 서툴고 치졸한 배냇짓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때 내 나이 아직 어리고 그래서 어리석었기에 내가 가려는 길의 고되고 서글픔에 때로는 도망치고 싶기도 했음을 고백하네. 하지만 친구여, 나의 미숙과 실수를 이제는 알을 깨고 태어나려는 자의 힘겨운 진통이었다고 이해하고 용서하기 바라네.

자네, 지금도 기억하나?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아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싯귀절을, 그래 이제나도 떠날 때가 되었나 보네. 떠나야 할 줄 미리 알지 못했던 바 아니나, 역시 떠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세. 미련이 남아서, 후회가 많아서가 아닐세. 이제 이 곳을 떠나는 것은 보다 더 많은 일을 더욱 힘차고 의연하게 해내야 할 줄 알기에 다짐하고 챙겨둘 것이 많아서가 아닌가 싶네.

친구여, 우리의 사랑이 이기고야 말것임을 아는 지금, 더이상 할 말이 없네.

아직도 입은 남아 있지만….

〈사회대 정외과〉

'된사람'을 찾아서

이 종 석 〈학술부장〉

"목청껏 부른 나의 노래가 사랑과 정의를 수호하는 무기이길 바랬네"

참 오래전의 일이었다.

시장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걸인을 향해 연신 혀를 낼름거리며 놀려대는 어린 아들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걸인의 동냥바구니에 동전 몇개를 넣어 주고는 아들의 손목을 슬며시 잡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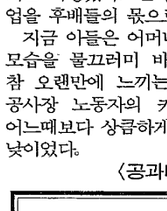
"불행한 사람을 보고 그러면 안돼. 단 한번의 손길, 작은 웃음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행복해 질 수가 있어…."

어머니의 타이름에 "피이"하며 입을 삐죽 내밀던 아들은 그 말의 뜻을 되새길줄 아는 나이가 되면서 그것이 사람을, 세상을 사랑하는 맨 처음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영향탓이었을까. 아들은 장래의 꿈마저 세계적인 과학자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양로원을 경영하는 소위 사회사업가라는 것으로 바꾸고 있었다.

대학, 아들은 대학에 입학했다. 아들에게 대학이란 곳은 불행한 사람, 소외된 사람과의 작은 웃음이 진실이라는 믿음으로 허용되는 유일한 공간으로 여겨졌다….

어머니는 어느 때부터인가 아들의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었다. 아들의 가방속에서 기자수첩이라는 낯선 노트가 발견된것은 그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아서였다. 아들의 얼굴은 점점 표정없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다….

학생기자. 아들은 학업을 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을 학생기자라는 직에 복무하고 있었다. 주위의 모든것들을 사랑하고자 했던 아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모를 자기모순의 위기감에 빠지곤 했다. 조직내에서 때때로 맛 볼수 밖에 없었던 종적·횡적 경직성. 그것은 그를 가장 가슴아프게 하는 것 중의 하나였다.



지 동 철 〈논설부장〉

"단한번의 손길 작은 웃음만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사회를 보고 싶었다"

아들은 '난사람' '든사람'이 아닌 '된사람'을 만나고자 했다. 된사람은 좀처럼 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바램은 오히려 더 절실했었는지 모른다. 그들을 만나 세상에 알려 주고 싶었다. 불행한 사람들의 입가에 작은 웃음을 띄어 주고 싶었다.

아들은 이제 학교를 잠시 떠나기로 작정했다. 된사람을 찾는 작업을 후배들의 몫으로 남겨둔체.

지금 아들은 어머니의 빨래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참 오랜만에 느끼는 풍경이었다. 공사장 노동자의 카랑진 음성이 어느때보다 상큼하게 전해오는 한낮이었다.

〈공과대 전산학과〉

에디로 갈꺼나

김 경 애 〈문화부장〉

그 의미 만큼 소중하게 기억될 시간들을 가지런히 접으며 이젠 떠날채비를…"

왔다! 무언지 몰라도, 하여간, 왔다! 부기오른 얼굴을 거울에 비추었다. 나의 「삶의 색깔」은 무엇이었던가. 머리속이 어수선하다. 흐리멍텅한 머리속은 안개가 가득 낀 것 같이 답답하다. 하얀 수건으로 입김을 넣어 투명하게 닦아내고 싶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행을 떠났었다. 이젠 종착역에 다다라 떠날때의 기대와 설레임 대신 피로와 허무만이 냉랭하게 뒤덮는다.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 어제도 오늘을 위해 살았고, 내일도 오늘을 위해 존재했다. 절망할 여유조차 없이 숨가쁘게 오늘을 살다보니 이젠 덩그러니 플랫포옴에 혼자 남게 되었다.

자유로운 지성을 갈망하며 채울 수 없는 욕망을 달래면서도 '서산에 지는 해는 아주 저버리기 위해서 지는 건 아니다'라는 구차한 변명에 또 오늘을 견디어(?) 나갔다.

무엇을 하고자 했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해야 했고 그때마다 지식의 결핍이 나를 파고 들었다. 열심히 그리고 분명하게 살리라 다짐하지 않았던가. 아니 그렇게 살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항상 부끄러움을 떨쳐 버리지 못한체 지금은….

신이 나에게 단 한가지의 소원을 말하라 한다면, 똑같은 인생을 다시 한번 살게 해달라 하고 싶다.

닳아가는 시계의 초침과 함께 책상앞에서 한뭉치의 원고지와 세 벽을 맞이하고, 일년의 삶을 한 주일에 살아내야 했던 지난 날들은 그 의미와 가치만큼이나 소중하게 기억될 것이다. 벅차오르는 감동도,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던 기억도 이젠 가지런히 한 묶음의 노트에 접어놓고 진정 내일을 맞이하고 싶다.

차가운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기에 충분했던 나의 동료들, '모색의 진리, 고뇌의 진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과 그리고 활자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할 후배들,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채찍질해주신 동대신문사의 모든 분들께 감사와 가슴으로부터의 힘찬 박수를 보낸다. 이젠 떠날 채비를 서둘러야 할 시간이다.

〈이과대 통계학과〉

바음이

최 경 인

〈11〉

메아리

진실의 목소리

▲ 글을 쓴다는 것은 무척 힘든 작업임에 분명하다. 피가 끓고 생동감 넘치게 쓰는것도, 절제 있는 단어를 선택해 사용하는 일도 어렵다.

특히, 이성과 양심을 갖고 살다보면 이해할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시대에 겸열을 두려워 않고 명쾌한 논리를 한정된 지면에 진행해야 하는 사명감이 주어질때 필자에 따라 글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기성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구대야합'에 의한 작태를 신랄하게 비판해 독자들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글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본교의 현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글을 쓰는 것도 어렵다. ▲마치 양심은 어디론가 내팽게쳐 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어제 한 말을 오늘은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면 '부끄러움의 실종시대'가 아닌가 싶다. 1990년의 짧은 기간은 총장 직무대행, 총장서리, 총장…등의 직함을 보유했던 화려한 경력의 교수들이 대거 배출, 본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한쪽에선 유능한 인물이 많다는 치졸한 자의식이 섞여 나오지만 역사의식과 소명감이 부족한 인물들이란 의견이 지배적임은 부언일 뿐이다. 선장의 올바른 지휘없이 항로를 정확히 나아가기란 극히 어렵다. 하물며 한 대학의 지향과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조화롭게 수렴,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는 더욱 절실한 것이 총장의 지도력임을 말해 무엇하랴. 6개월이건 10년이 되었건 시한이 문제될 순 없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닌 내용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이다. ▲이젠 필자가 반성해야 할 것 같다. 혼란스러운 현실을 정확히 비판해내지 못하고 글을 쓰는 것은 어렵다는 넋두리만 늘어놓았으니 말이다. 올바른 지도자상에 걸맞는 분은 한번도 그많은 '총장…'에 응募된 적이 없음을, 보직인사행정만 거듭하는 현 체계를 모두 비판하지 못했다. 암울한 시기에 '진실을 말함에 있어 떨림이 없는 목소리'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한 논리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

〈逸〉

*대한교육보험이 '국민교육진흥'을 위해 설립한

교보문고

대학생을 위한 모든 신학기교재, 교양도서·학술도서 완전구비!

- 대학의 모든 **신학기교재, 영문원서교재, 외국어회화교재** 완전구비
- **영어·불어·독일어·스페인어·일본어** 등 세계주요언어권의 **신간도서** 및 **학술관계정기간행물** 신속 수입공급
- 외국의 **석·박사학위논문집**의 한국총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든 간행물에 대한 한국총판, 각종 **산업규격정보**를 CD-ROM 또는 마이크로필름화하여 제공하는 **해외산업기술정보자료실**(I.H.S.)을 운영
- 독서정보를 제공하는 **도서안내,** 각종행사의 **예매권판매코너,** 도서납품상담에 친절히 응해드리는 **특판과** 운영
- 국내최대의 **문구점, 컴퓨터기기판매코너, 아트박스, 스넥코너, 음식점** 등이 함께 자리잡고 있는 도심속의 쾌적한 **문화공간**

서울종로1가1번지/대한교육보험빌딩/Tel.730-7891(대)/도서안내735-6151/외국서적부734-7374/총판 739-2710/베스트셀러 자동응답전화702-7500

학문발전의 기초가 되는 국내 초유의 획기적 출판! 限定版500세트

分野別 文獻目錄

*최근 10年間 국내定期刊行物에 수록된 論文目錄을 論題名 가나다順으로 정리한 획기적인 資料集!

1978년부터 1987년까지 국내에서 간행된 정기간행물 1, 247개 지에 게재된 논문목록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색인화한 국내 최초의 문헌정보자료집. 이 '문헌목록'은 대학생·대학원생·학자·전문연구기관 등에서 자신의 전공분야에 누구의 어떤 논문이 어디에 실려 있는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학문연구에 대단히 긴요한 자료집으로서 효율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음.

■전질 또는 낱권으로 판매가능

COBUILD 英英辭典

*전세계가 격찬한 영어사전의 결정판!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전의 혁명이다!

■ 2백만개의 어휘자료에서 컴퓨터가 분석해낸 표제어휘 70,000단어 수록!
■ 90,000개의 예문으로 확실한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세계초유의 예문중심 사전!

페이퍼백■12,000원 하드커버■18,000원

*'교보문고' 총판공급도서

현대해양법론 김영구著/값5,000원
농업의 경영계획론 김종무著/값8,000원
객관식 신경제학연구 한국경제연구소編/값11,500원
미대통령 부시의 경제정책 미래연구소編/값4,500원
중공사회주의의 갈등 김 종著/값4,500원
이이 철학연구 황준연著/값3,000원
한국사실주의 희곡연구 김방옥著/값4,800원
독립운동사 교양총서(전11권) 한국독립운동연구소펴냄/값 각권1,200원

'교보문고'가 펴낸 大學人을 위한 良書!

東유럽紀行 89년도文公部추천도서 정원조著/값5,500원
中華人民共和國經濟史 이덕빈著 값각5,000원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현대사상신서1 李光來편/값6,000원
對美經濟로비論 미국과의經濟로비 방법론제시 朴民秀著/값4,500원
放送法制論 방송의法制에 관한 이론서 朴容相著/값12,000원
뉴미디어總論 새 미디어에 관한 總論的안내서 이화의著/값6,000원
監査制度論 감사의 방법론과 제도에 관한 본격 연구서 백상기·김정욱著/값7,000원
자본주의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미제스著 3,500원
집단상담의 이론과 기술 그룹상담의 구체적 방법제시 강기호·차호원著/4,000원
高句麗民族形成과社會 이 옥著 값4,500원
미래를 향한 企業戰略 네이스비트著 값4,000원
韓國과 日本 在美한국정치학자가 조명한 韓日관계서 이정식著/값3,500원
X의 日本論 새로운 시각으로 오늘의 日本을 해부 강범석著/값3,800원
로 비 이른바 '로비'의 정체를 벗기는 충격리포트 김종환著/값4,000원
中國紀行 오늘의 中國대륙을 샅샅이 체험한 기록 심철호著/값4,500원
가난한 演劇 현대연극理論의 교과서라 불리는 名著 그로토프스키著/고승길譯/값4,800원
스크린 인생론 주옥같은 문장으로 아로새긴 映画감상 김중원著/값5,500원